

남가주 찾은 기부천사 션 “행복은 나눌수록 커져요”

행복한 나눔, 아름다운 나눔 2019 남가주 밀알의 밤 성황



가수 션의 간증과 신나는 공연으로 하나됐던 2019 남가주 밀알의 밤

2019년 남가주 밀알의 밤이 '하나님의 은혜'란 주제로 지난 1일부터 3일까지 사흘 동안 ANC 은누리 교회와 남가주 새누리교회, 남가주 사랑의교회에서 각각 개최됐다.

올해 밀알의 밤 메인 게스트로 초청된 '션' 집사는 가슴이 파스해지는 간증과 신나는 공연으로 함께 한 청중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했다.

가수 션은 한국 최고의 '기부천사'라는 명성에 걸맞게 전 세계 수많은 이웃들에게 베푼 사랑을 감동적이고도 유쾌하게 묘사해 참석자들로부터 깊은 공감을 이끌어냈다.

'자신과 가까운 사람들에게 축복의 말을 아끼지 말라'는 말로 간증을 시작한 션 집사는 아내인 배우 정혜영과 결혼하던 날 '하루 만원씩 기부하자'고 약속했던 이야기부터 필리핀에 살고 있는 '클리리제'를 한 달 3만 5천원 씩 후원한 사연, 캠페인을 통해 1천 4백명의 아이들을 후원하는 기쁨, 아이티 지진 피해자와 북한, 우간다에 있는 고아들에게 사랑의 손길을 펼친 이야

기, 한국 최초의 어린이 재활병원인 '푸르메 재활병원'을 건립한 사연 등을 영상을 곁들여 생동감있게 소개했다.

특히 그는 "행복은 나눌수록 커진다"며 "가진 것이 많아서 나누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 이웃과 함께 나누는 것"이라고 간증하며 나눔의 삶으로 초대했다.

올해 밀알의 밤에는 목회자 자녀로 이분척추증(Spina Bifida)을 앓고 있는 '강라연' 어린이가 어머니 강미애 사모와 함께 <고백>이라는 찬양을 불러 참석자들에게 따뜻한 감동을 선사했다.

이분척추증은 동양인으로는 10만 명 중 1~2명이 걸리는 신경관 결합 질환으로 선천성 기형을 갖고 태어나 응급실을 빈번히 드나들면서도 천사 같은 웃음으로 주위를 환하게 만드는 라연이로 인해, 라연이 가족은 질병을 축복으로 받아들이고 가족 모두가 기도로 어려움을 이겨나가고 있다.

김동욱 기자
 [2면에 이어서 계속]

美 청소년 자살률 최근 10년 사이 56% 급증

미국에서 지난 2007년부터 2017년 사이, 10~24세 청소년들의 자살률이 56%나 급증했다고 미국 크리스천포스트가 미 질병예방통제센터(CDC)를 인용해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2010년부터 자살 건수가 피살자 수를 추월하기 시작했으며, 2017년에는 청소년들의 자살로 인한 사망 건수가 자동차 사고 등 사고로 인한 사망 건수 다음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5~19세와 20~24세의 경우, 살인으로 인한 사망 건수는 3번째로 많았고, 10~14세의 경우는 5번째로 많았다.

보고서는 "10세부터 24세 사이의 자살율은 2000년부터 2007년까지 안정적인 추세를 보이다, 2007년부터 2017년까지 증가했다"고 전했다.

이어 "자살의 증가율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연평균 7% 증가했으며, 이는 2007년부터 2013년까지

3%보다 2배 이상 높은 수치"라고 밝혔다.

또 "15세부터 19세 사이 청소년의 경우, 자살률이 2000년부터 2007년까지는 안정적인 추세였으나 2007년에는 10만 명당 6.7명에서 2017년 10만 명당 11.8명으로 급증했다.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증가율은 연평균 10%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CDC는 향후 10년 동안 자살률은 10만 명당 6.8명에서 10.6명으로 늘

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보고서의 공동저자인 샐리 커틴(Sally Curtin) 박사는 NPR과의 인터뷰에서 "자살하는 추세가 늘어나고 있을 뿐 아니라, 자살의 증가율도 실제로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CDD의 최고의료책임자 알렉스 크로스비(Alex Crosby)는 CBS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청년들의 사망율이 증가하는 요인을 단 하나로 꼽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전국자살예방행동연맹(National Action Alliance for Suicide Preven

tion)의 콜린 카(Colleen Carr) 대표는 한 의료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자살예방의 노력을 강화하고, 청소년들의 자살률의 증가와 관련된 요인들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녀는 "자살은 한 가지 요인이 아니라 정신건강의 상태를 포함한 여러 가지 요인으로 발생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사회적, 신체적, 감정적, 재정적 문제 등 우리가 평생 경험하게 될 중요한 상황적 요인들도 포함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강혜진 기자

이제는 안심하자!
치아 고민·걱정 끝!
 치아는 하나뿐이니까!
 소중한 내 치아를 위한 '지과 선택 기준'은?
 바쁜 고령, 정직한 올림픽 치과에서 속 시원히 알려드립니다.
 CT 진단과 컴퓨터 시스템으로 제작한 가이드 임플란트 이 동 희 원장
올림픽 치과 213.385.4011
 OLYMPIC DENTAL CENTER 2655 W. Olympic Blvd, #206, L.A, CA 90006
 (Olympic + Menlo Ave, 뉴 시글 호텔 건너편)

그린카피어 리스 & 렌트
 Green M. Wild IMAGE SYSTEMS
 Office and Industry Technology Solutions
 Lease/Rent/Sale/Repair/Toner/Maintenance
 칼라복사/칼라프린트/칼라스캔/팩스/네트워킹
 교회 및 자선, 비영리단체는 특별한 할인
 greenmwild@gmail.com
 TEL: 213 705 7778
 bizhub KONICA MINOLTA

아버지 밥상 교회
 주일예배 오전 11:00
 홀리스와 가난한 자들을 먹이고 입히는 헬터 사역을 합니다.
 - 도네이션 받습니다. (옷 신발, 이불, 치약, 칫솔, 의약품...)
 - 자원봉사자가 필요합니다. 연락주세요.
 (남자 300명분의 음식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도네이션 Open bank : father's table mission
 라우팅 넘버 : 122043958
 어카운 넘버 : 06209456
 3210 W. Olympic Blvd., L.A., CA 90006
 Tel. (213) 364-7289, (213) 605-1983

NEWSONG MINISTRY는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예배의 회복과 문화회복을 위해 집회사역과 YouTube 미디어 사역을 하고 있는 문화사역단체입니다.

문화사역단체
NEWSONG MINISTRY에서
팀원을 모집합니다.

모집파트
 찬양팀 _ 찬양인도자, 보컬(남,여)
 악기팀 _ 일렉기타, 세컨건반, 어쿠스틱 기타
 미디어팀 _ 디자인, 영상편집, 사진
 음향 엔지니어

자격조건
 세례교인으로서 자신이 가진 달란트를 문화사역에 헌신할 분

사역초청 및 문의
 Sarah Hwang 간사 : 714-742-0161
 @newsong_ministry
 newsongministryla@gmail.com

NEWSONG STUDIO
전문 음악 학원

찬양 반주 집중 레슨
 메인 건반, 세컨 건반
 일렉 기타, 어쿠스틱 기타
 드럼
 베이스
 보컬
 클래식 피아노
 바이올린
 플룻
 CCM 반주법
 밴드 앙상블 수업
 라이브 녹음, 앨범 제작
 연습실 대여

714-737-7071 GRACEBAEK417
 newsongstudiooc@gmail.com
 7050 Village Dr. #1-2 Buena Park, CA 90621

“선교적 사명으로 한인 디아스포라 신학교 사명 감당하겠다!”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개교 42주년 후원의 밤 개최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개교 42주년 후원의 밤에서 환영인사를 전하는 이상명 총장.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개교 42주년 후원의 밤에서 특별 찬양하는 미주 장신 콘서트 콰이어.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총장 이상명, 이하 미주장신대)가 개교 42주년을 맞아 지난 4일 나성영락교회에서 후원의 밤을 개최했다.

학교 동문을 비롯해 지역교회 목회자들과 리더들이 참석한 후원의 밤은 이상명 총장의 환영사와 학교 소개 및 비전소개, 이규화 전도사(미주장신 재학생)의 간증, 원격교육원 디렉 강우중 교수의 후원 요청 메시지 등으로 진행됐다.

또한 미주장신 찬양팀이 인도하는 뜨거운 찬양과 동문 특송, 재학생과 교수가 함께한 콩트, 재학생 간증, PTSA 비전메이커 영상, 미주장신 콘서트 콰이어의 공연 등 짜임새 있는 순서가 돋보였다.

이상명 총장은 환영사에서 “2012년 총장 취임 이후 학교 발전을 위해 힘 없이 달려왔지만 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이었고, 인간의 힘으로 되지 않을 것 수많은 어려움 또한 해결해주셨다”며 “미국 신학교가 흔들리며 무너지는 상황에서도 미주장신대가 든든히 서가고 발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전했다.

이 총장은 이어 “미주 장신대는 ‘선교적 사명’을 가진 신학교”라고 소개하며 “선교적 영성과 바른 목회관으로 생명의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할 기독교 리더를 배출하는 한인 디아스포라 신학

교의 사명을 감당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미주장신대는 총장이 이끄는 학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들어 나가야 할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라며 미주 장신대의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기도와 물질로 동참해준 후원자들에게 감사사를 전했다.

이 총장은 “미주 장신대는 선교 지향적 한인 신학교로서 글로벌 리더십 교육과 양질의 신학교육으로 훈련된 사역자를 양성하고 있다”며 “온라인과 온 캠퍼스 교육으로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 어디서든 양질의 신학교육을 받을 수 있다”고 소

개했다.

그는 “미주 장신대는 아름다운 학문 공동체이자 경건한 신학 공동체로, 학교가 가진 장점을 통해 신학 이론과 실천을 교육하며 전 세계 한인 디아스포라 섬기는 신학교로 나아가 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1977년 설립 이후 미주장신대는 오프라인과 온라인 과정에서 건전한 복음주의 신학 교육을 제공하는, 한인 디아스포라의 대표적인 선교 지향적 학교로 자리매김했다. 2011년 ABHE(Association for Biblical Higher Education) 정회원 자격을 취득한 후 2017년 11월에는 한인 신학교 가운데 최초로 철학박사(Ph.D. in Contextual Studies) 과

정을 개설해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현재 신학 학사(B.Th.), 교역학 석사(M.Div.), 크리스천 상담심리 석사(MACCP), 선교학 철학박사(Ph.D. in Contextual Studies), ESL 과정이 있고, 학사 및 모든 석사 과정은 100% 온라인으로도 수강할 수 있다. 또 학사 학위의 경우 토요일 하루 종일 진행되는 영어 수업을 통해서 취득할 수 있어, 영어권 다민족들에게도 다가서고 있다. 영주권 및 시민권을 소지한 학사 학생들은 연방정부 교육국으로부터 학자금 보조를 받을 수 있다.

김동욱 기자

[1면 “행복한 나눔, 아름다운 나눔 2019 남가주 밀알의 밤 성황” 이어]

라스베가스 비전교회를 섬기는 감미배 사모는 “처음에는 ‘그런 희귀 질환이 왜 하필 우리 가정에게 찾아왔는가?’라는 의문과 실망감이 있었지만, 이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하심 안에 있으며, 그의 창조 섭리는 조금의 오차도 없이 완벽하시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라언이의 질병은 가족 모두에게 주신 축복 중 축복이 되었다”라고 고백하며 참석자들에게 희망을 전했다.

2019 밀알의 밤에서 얻어진 수익금은 장애인 학생들에게 2020년도 밀알 장애인장학복지기금을 수여하기 위한 기금으로 사용될 예정

이다.

남가주 밀알 이준수 목사는 “2019 밀알의 밤은 밀알을 열렬히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크신 ‘은혜’를 수많은 이들의 가슴에 심어주었다”며 “모든 출연자들과 스태프의 헌신적인 노고와 여러 후원자 분들의 값진 참여와 성원으로 성공적인 밀알의 밤 행사가 될 수 있었다”라고 밝혔다.

이 목사는 “장학생 선발 과정과 장학금 수여식 역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순조롭게 진행되어 어려운 환경에서 공부하는 장애인 학생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며 “앞으로도 밀알



아름다운 찬양을 선보인 남가주 밀알 수어 찬양단

선교단은 더 많은 장애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그들의 아픔과 불편함을 덜어주는 일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밀알선교단은 2001년부터 경제적으로 어려운 장애인 학생들에게 (밀알 장애인장학복지기금)을 수여하기 시작해 올해까지 \$2,387,000을 지급했다. 올해에도 미주 장애인 장학생 9명과 근로복지생 3명, 꿈나무 장학생 38명, 제3국 및 북한 장학생 10명, 장애인 선교사역자 육성 장학금 20명, 긴급지원 대상 추가 기금 10명 등 총 90명에게 \$153,200의 장학기금을 지급했다.

오바마케어 승인 프로그램

Christian Healthcare Ministries

크리스천 헬스케어

* 연중 아무때나 가입이 가능.
* 골드 프로그램은 본인부담금(\$500)을 지불하지 않음

www.chman.org 714.738.1234

ACCREDITED CHARITY bbb.org

www.saseducation.weebly.com

실무 11년의 노하우

SAS 인가컨설팅, Inc

1-20 자격신청

- 직업전문대학인가(ACICS)
- 신학교 인가(TRACTS, ATS)
- BPPE 신규 및 재승인
- 온라인교육 세팅 및 운영

대표 Paul Kim, Ph. D
Tel : (213)531-7215, (213)833-8208
2975 Wilshire Blvd., #B01., LA, CA 90010

summitus37@gmail.com

GATEWAY SEMINARY

Biblical • Missional • Global

게이트웨이신학대학원에서 한영 이중언어과정 학생을 모집합니다.

- 학위과정: 목회학석사(MDIV), 신학석사(MTS), 기독교교육학석사(MAEL), 선교학석사(MMISS)
- 위치: LOS ANGELES CAMPUS, GATEWAY SEMINARY
게이트웨이신학교 본교 (3210 E. Guasti Rd. Ontario, CA 91761-8642)
- 등록마감일: 11월 1일(예비지원서 [PRE-APPLICATION]은 12월 15일)

> 한영 이중언어과정은

- 미래 이민교회의 지도자들을 훈련시키는 목회자 양성 프로그램입니다.
- 세계최대의 개신교단인 남침례교회가 후원합니다.
- 본교의 자원과 커리큘럼이 활용됩니다.
- 성경적이고 선교적이고 세계적인 지도자 양성을 목표로 합니다.
- 탁월한 학문성과 교단의 지원 그리고 이민교회 목회자로서 온전히 구비된 미래교회 지도자들을 위한 과정입니다.

>> 본 과정은 주로 한국어로 진행되지만, 게이트웨이신학대학원의 교수진과 자원이 충분히 반영됩니다. 북미주 최고의 학력인증기관인 the Association of Theological Schools (ATS)와 Western Association of Schools and Colleges (WASC)에서 학위를 인정하는 프로그램입니다.

CONTACT FOR MORE INFORMATION : 909-687-1649 EXT.1320 KEB@GS.EDU
OR VISIT : www.gs.edu/keb

월드미션대학교 간호학과 신설로 종합대학 교두보 마련

2019 후원의 밤 갖고, 기독교 전문 인재 육성 다짐

월드미션대학교(총장 임성진 박사)가 지난 2일, 옥스포드 팔레스 호텔(Oxford Palace Hotel)에서 개최한 '간호학과 신설 기금 마련을 위한 2019 후원의 밤'에 200여 명의 후원자가 참석해 기독교 종합대학을 향한 월드미션대학교의 비전에 뜨거운 성원과 지지를 보냈다.

월드미션대학교는 올 가을학기에 RN to BSN 과정 신입생 20명을 모집했으며, 기독교 정신에 입각해 전문지식을 갖춘 한인 간호사 양성을 위한 내실 마련에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월드미션대학교의 간호학과 신설은 기독교 종합대학으로 발전하는 교두보를 마련함과 동시에 미국 내 부족한 전문 간호인력을 배출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또한 고령화 시대를 맞아 노인들을 보살피고 섬기며 기독교인의 의무와 사명을 실천하는 장을 열 계획이다.

임성진 총장은 이번 가을학기에 입학한 150여 명의 신입생을 비롯해 라틴, 중국어 프로그램 활성화, 온라인 코호트 프로그램의 확대 등을 소개하면서 기독교 종합대학으로 뻗어나가는 비전에 기도와 협력을 당부했으며, 후원자들은 큰 박수로 화답했다.

임 총장은 "사회, 문화적으로 큰 변화를 겪고 있는 현실에서 기독교의 진리와 교육의 본질을 수호하면서 동시에 이런 각종 변화에 능동적



월드미션대학교는 지난 2일, 옥스포드 팔레스 호텔(Oxford Palace Hotel)에서 '간호학과 신설 기금 마련을 위한 2019 후원의 밤'을 개최했다.

으로 대처하고 주도하는 학교가 될 것"이라며 "변화의 시대를 리드하는 월드미션대학교"는 간호학과 신설을 바탕으로 기독교 종합대학으로 성장하는 기초를 다지고, 한국어 중심의 교육을 넘어, 라틴 프로그램을 통해서 스페인어, 중국인 학생들을 위한 중국어 통역, 향후 영어로 강의하는 프로그램을 중점적으로 강화할 나갑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이론과 현장 경험이 조화를 이룬 교육을 통해 시대적 요구에 부합하는 기독교 전문 인재를 육성하겠다"라고 밝혔다.

후원의 밤은 총장 환영사에 이어 월드미션대학교 음악학과 제프 코렐라(Jeff Colella) 교수가 클래식 재

즈 트리오로 특별 무대를 선보였으며, 간호학과 소개 영상과 오정기 교수의 '21세기 간호 교육에 있어서의 도전과 혁신' 기초연설, 대외협력처장 이금희 교수의 1110 기부 릴레이 안내가 이어졌다.

특별히 이날 강한 동문상에는 지난 2017년 5월, 북한에서 중국으로 가는 국경을 넘기 전 북한에 대한 적대 행위를 저질렀다는 혐의로 북한 보안기관에 의해 체포돼 1년간 억류되어 있다가 풀려난 김학송 목사가 수상했다.

김학송 목사는 2004년, 월드미션대학교 목회학 석사 과정을 마치고 동양선교교회에서 2005년 목사 안수를 받고 2014년 중국 선교사로

파송돼 평양과기대에서 농업연구를 해왔다.

월드미션대학교는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공향에 마중 나오는 등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본교 재학생과 동문들에게 도전과 위로와 소망을 준 것을 치하하며 김학송 목사의 장한 동문상 수상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진 장학금 수여식에서는 목회학 석사과정에 재학 중인 최은전 전도사가 '임동선 설립자 장학금'을 받았다. 이번 가을학기에 입학해 설립자 장학금을 받게 된 최은전 전도사는 졸업까지 등록금의 50%에 해당하는 설립자 장학금을 받게 되는 영예를 누리게 됐다.

임동선 장학금은 고 임동선 목사가 모든 사재와 생명보험까지 기탁해 현재 55만 달러의 장학기금이 마련돼 있으며, 고 임동선 목사의 자녀들이 목회자와 기독교 사역자를 배출한다는 비전으로 100만 달러 장학기금 마련에 헌신하고 있다.

이날 후원의 밤은 윤성환 이사장의 축도로 모든 순서를 마쳤다.

한편 월드미션대학교는 설립자 임동선 목사의 "세계는 나의 목장이다"라는 목표와 신념 아래 1989년 3월 27일 설립됐으며, 개신교 복음주의에 입각한 영적 훈련과 학문으로 오늘날까지 세계 선교를 위한 선교사, 목회자, 평신도 지도자를 육성하고 있다. 김동욱 기자

빌립보교회 성전 이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교회될 것"



빌립보교회 성전 이전 감사예배를 마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빌립보교회(담임 신상원 목사)가 한인타운 111 N. Virgil Ave, L.A.로 성전을 이전했다.

빌립보교회는 지난 3일, 이전 감사예배를 통해 30년간 교회를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교회의 힘찬 도약을 선포했다.

이날 "두렵도다 이곳이여"(창 28:16-19)라는 제목으로 설교한 신상원 목사는 "빌립보교회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다"며 "교

회를 이전하게 하시고 앞으로 더 큰 일을 행하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삶의 현장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인재를 누리며 힘차게 나아가는 빌립보교회와 성도들이 되자"고 전했다.

신 목사는 또 "연단의 과정을 통해 성숙한 영성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며 "성도들에게 약속하신 모든 언약이 빌립보교회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고 선교하며 찬양하는 믿음의 공동체로 가꾸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감사예배는 주지명 집사의 색소폰 연주, 김정화 목사, 김의영 권사, 차청아 집사가 특별 찬양을 불렀고 이세호 목사의 축도로 마쳤다.



극빈한 가정을 심방해 예배드리고 위로하는 사역 관련기사 4면 '이상훈 목사의 선교칼럼'

복음통일을 위한 동족선교구입(안내)

고난의 대항군 때, 그 땅에 굶주림이 극에 달할 때, 하나님께서는 천국의 목마름을 그들에게 주셨다.

그래서 그들은 술한 입제와 통제속에서도 성경을 알게 되면서, 이 민족을 향한 주님의 성리를 깨달아 복음통일의 귀한 병기들로 세워져가고 있음이 이 책을 통하여서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박상원 목사(편저자) "굶주림보다 더 큰 목마름(한/영), 빛은 그를 외면하지 않았다"

16225 48th Ave, W. #345 Lynnwood, WA 98037 Tel: 425.775.7477 gbmwusa@gideonbrothers.org | www.gideonbrothers.org
 돕는 방법: Pay to: G.B.M.W.(에크오데명)로 기업에서 아래의 주소로 보내주세요. 연말세금공제명수증도 보내드립니다.

선교 패러다임의 대전환!

자비량 선교세미나

"한 손에는 복음을, 다른 한 손에는 비즈니스를..."

12월 9일(월)
10:30am-2:00pm

로텍스호텔
3411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19
(323)734-1001

주최: 크리스천비전신문사 대상: 목회자, 선교사, 사모, 평신도 리더 강사: 김영관 목사
 주관: 세계제자훈련선교회 등록: 선착순 100명 / 등록비: 무료(뷔페식 점심 제공)
 후원: OC한인여성목사회 / 비전복음방송(AM1540) 문의: (323)934-7500 / (714)390-9197

♡ 섬기고 나누는 월드쉐어 USA

✉ 선교부흥을 회복하라 #133

“뿔라(Beulah) 공동체와 의의 나무 사역(3)”

뿔라 공동체를 담당하는 이주혁 조지혜 선교사 부부를 만난 첫 느낌은 참 신선했다.

어떤 말을 해도 꾸밈없이 진솔하게 전하는 말들과 그들의 호탕한 웃음소리는 복귀한 후에도 오랫동안 여운이 남았다. 그들이 공동체에 와서 발전시킨 사역이 의의 나무 사역이다. 뿔라 풀리넷 마을의 어린이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실 의의 나무로 보았다.

필자가 갔을 때 유난히 표정이 밝고 총명해 보이는 한 소년이 눈에 띄었다. 이주혁 선교사가 그 아이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

자신들이 이곳에 부임해 와서 어린이 학교인 “하나님의 은총 사역”을 하면서 아이들을 데리고 올 때 그 소년은 수용 대상이 못되었다. 가정에 보호자가 될 수 있는 어른이 없었다. 아이는 그 동네서 구걸을 하며 하루 하루 비참하게 살았다.

그러던 어느 날 이주혁 선교사가 공동체로 데리고 올 아이들을 차에 태우고 공동체 안에 와 보니 그 구걸을 하던 소년 아이가 아이들 틈에 살짝 끼어 몰래 차에 올라온 것을 발견했다. 발런티어들과 자원 교사들이 그 소년은 불량하고 구걸하는 아이라 하여 돌려보내려 했다. 마음이 착하고 고운 이주혁 선교사 내외는 그 아이가 너무 딱하고 불쌍한 마음이 들었다. 그래서 발런티어 교사들을 설득하여 그 아이가 공동체 학교에서 잘 적응하는 전제로 그날부터 받아들이기로 했다.

그렇게 그 아이는 아이들과 같이 공부를 시작했는데 또래 친구들의 학업 수준을 곧잘 따라가고 선생님들을 잘 돕고, 성격이 활발해지면서 많은 회복이 일어난 것이다. 이 선교사 내외는 그 아이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의의 나무라는 것을 확신하며 돌보고 있다.

그렇게 열악한 풀리넷 마을의 자녀들은 뿔라공동체와 함께 소망과 믿음의 자녀들로 변화하고 있었다.



이상훈 목사
주비전교회 담임

필자는 그 소년의 1년 후의 모습을 기대한다. 그 아이들의 1년 후의 모습이 상상해 본다. 그들의 믿음이 강해질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될 것이고, 또한 자신들이 누구에게든 사랑의 빛을 갈을 수 있는 자녀들로 성장해 나갈 것이다.

또 한편 이 선교사 내외가 주력하는 사역이 있다. 가정환경이 극도로 열악한 빈민가정을 찾아 날마다 심방하고 위로하는 사역이다.

엘에이 아버지장고에서 2주간마다 공급받는 음식들을 가정의 상황별로 미리 챙긴다. 아이들과 가족의 수대로 음식량을 조절하고 공동체의 발런티어 사역자들과 자녀들 중에 따라가고 싶은 아이들을 모두 차에 태운다.

이 선교사의 말인즉, “목사님! 저는 심방 가는 것을 축제같이 생각합니다.” 하며 그 이유를 설명했다. 늘 홀로 허름한 집 안에서 거동도 잘 못하는 어른들이나 환자들이 있는 가정들을 찾아가는 데 아이들을 포함해 여러 사람이 그 가정을 찾아 그들을 위해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들을 위로하는 것을 심방하는 분들이 좋아한다.

외로운 사람들, 소망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먹을 끼니 없이 사는 사람들에게, 심방은 소망이 준다. 기쁨을 준다.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기 인식을 회복하게 된다. 그래서 그 힘든 심방의 사역을 매일 6가정씩 정해 방문한다고 했다. 그렇게 이 선교사 가정은 한 마을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주님이 맡겨 주신 의의 나무 사역을 열심히 해 나가고 있다. 할렐루야!

행복 만들기 (4) 칭찬

칭찬 샤워!!

행복하려면 칭찬해야 합니다. 칭찬하면 행복의 기운이 전파됩니다. 비난과 비판은 피차의 행복을 빼앗아 갑니다. 실제로 비난과 비판의 유익은 거의 없습니다. 비판과 비난으로 사람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칭찬과 격려하는 사람을 변화시키고 행복의 정서를 윤통시킵니다. 가까운 이웃을 칭찬함으로 긍정적인 변화를 유도하고 그 이웃을 행복하게 하고, 나 자신도 행복해지는 행복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보세요.

아프리카에 바벰바(Babemba) 족이라는 부족이 있습니다. ‘바벰바’ 족은 잠비아 북부의 고지에 사는 반투(Bantu)어를 사용하는 부족입니다. 인구는 약 15만인데 루바 제국의 후예들로서, 18세기 말 혹은 19세기 초 콩고에서 현재 지역으로 이주해온 것으로 알려집니다.

바벰바 족은 화전 경작을 하면서 약 30호로 구성된 소규모 촌락을 이루어 생활한다고 전해집니다. 그런데 이들의 화전경작법은 토지를 메마르게 만들기 때문에 그들은 4~5년에 한 번씩 새로운 토지로 이동한다고 알려집니다. 이들은 호전적이며, 초자연력을 믿는 부족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호전적으로 알려진 바벰바 부족의 따뜻한 문화적 전통이 있어서 사회 내에서는 범죄가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범죄율이 너무 낮아 사회학자들과 인류학자들의 관심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 부족이 범죄율을 낮추는 비법은 칭찬 샤워입니다. 부족 중에 잘못을 저지르면 그를 마을 한복판 광장에 데려다 세운 채 마을 사람들은 일을 중단하고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광장에 모여들어 죄인을 중심으로 큰 원을 이루어 둘러쌌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씩 돌아가며 큰소리로 한 마디씩 외칩니다.

그 외치는 말의 내용은 죄를 지



강태광 목사
월드쉐어 USA

어 가운데 선 사람이 과거에 했던 좋은 일들입니다. 그의 장점, 선행, 미담들을 하나씩 열거합니다. 어린 아이까지 빠짐없이 말합니다. 과장이나 농담은 일절 금지됩니다. 진지하게 모두 그를 칭찬하는 말을 해야 합니다.

이 칭찬 샤워는 독특한 법정입니다. 말하자면 판사도 검사도 없고 그를 변호하는 변호사만 수백 명 모인 법정입니다. 죄 지은 사람을 비난하거나 욕하거나 책망하는 말은 결코 한마디도 해서는 안 되고 반드시 좋은 것만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몇 시간이고 며칠이고 걸쳐서 칭찬의 말을 바닥이 나도록 다하고 나면 그때부터 축제가 벌어집니다.

실제로 이 놀라운 칭찬 폭격은 죄짓고 위축되었던 사람의 마음을 회복시켜주고 가족과 이웃의 사랑에 보답하는 생활을 하겠다는 눈물겨운 변화의 결심을 하게 만든답니다. 칭찬 세례의 강력한 효과는 이 마을에 범죄행위가 거의 없어 이런 행사를 하는 일이 극히 드물다는 사실이 증명합니다.

어린이 인성 개발 프로그램 중에 ‘칭찬 샤워’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한 학급의 어린이들에게 작은 쪽지를 나눠주고 학급의 모든 친구들 칭찬거리를 적어서 제출한 다음 선생님이나 사회자가 친구들의 칭찬 거리를 읽어 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처음에는 아이들의 어휘가 부족하여 사실만 나열하지만 점점 인성과 인격을 칭찬하게 되어 학급의 아이들 전체의 인격 성장을 가져오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 진행에서 주의 사항은 ‘멋지다!’ ‘잘 생겼다!’ 등의 칭찬보다는 ‘가방을 들어주는 모습이 좋았어!’ ‘청소하는 모습이 멋졌어!’ 등의 행동에 대한 칭찬이 좋다는 것을 주지해야 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칭찬하는 기쁨과 칭찬받는 기쁨의 체험입니다. 칭찬받는 것도 기쁘고 좋은 일이지만 칭찬하는 것도 근사한 기쁨을 누리게 합니다.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별칭이 필요한 학생은 학급 전체 아이들에게 각각 10가지 칭찬을 하게 하면 아주 긍정적인 별칭 수행이 됩니다.

칭찬 샤워 프로그램은 많은 유익함이 있습니다. 특히 칭찬을 주고 받으면서 아이들은 공동체에 대한 소속감을 갖게 되고, 참가한 모든 아이들의 자존감을 높이고, 칭찬하는 법을 배우고 칭찬받는 법을 깨닫는 효과를 얻습니다. 특별히 존재감이 없어서 주목을 받지 못하던 아이들이 학급 전체의 아이들로부터 칭찬을 받게 되면 달라집니다.

칭찬 샤워는 칭찬을 쏟아부어 주는 것입니다. 칭찬 샤워를 어른들의 공동체에서 실험해 보면 어떨까요? 여러분의 목사님께 칭찬을 쏟아부어 주세요. 오지 선교사님들에게 칭찬을 쏟아부어 주세요. 수고하는 봉사자들에게 칭찬 샤워를 해 보세요! 자녀들에게 칭찬을 쏟아부어 주세요. 노인대학이나 장년들의 모임에서 칭찬 샤워를 해 보세요! 가정에서 칭찬 샤워를 해 보세요. 생일날에 온 가족이 모여서 칭찬 샤워를 해 보세요! 가장 좋은 생일 선물인 것입니다.

칭찬 샤워로 마음이 시원해지기를 바랍니다.

기독교일보

편집고문 : 박희민, 장재호, 박기호, 방지각, 김중언, 고승희, 민중기, 정우성, 김혜성
발행인 : 이민규 이사장 : 존 킴 고문변호사 : 정찬용
지사 : 로스앤젤레스, 뉴욕, 샌프란시스코, 워싱턴DC, 시카고, 애틀랜타, 시애틀
대표전화 : (213) 739 - 0403 / E-mail : chdailya@gmail.com
주소 : 3020 Wilshire Blvd, #160, Los Angeles, CA 90010

후원
Pay to the Order of
Christianity Daily



Grace Mission University



Grace Mission University

그레이스 미션 대학교
- 견실한 인격
- 강한 군사
- 세계 선교



학위과정	다문화 철학박사 (PhD in ICS) 선교학 박사 (D.Miss)
	목회학 석사 (M.Div) 기독교 교육학 석사 (MA CE) 선교학 석사 (MA ICS) 기독교 상담학 석사 (MA CC)
특혜	신학사 (BA) 기독교 상담학 학사 (BA CC)
	한인신학교 최대규모의 도서관 저렴한 교육비 다양한 학교 장학금 수여 English Track LA Extension 유학생 I-20 발급 연방정부 학비보조 (Federal Student Aid) 온라인 통신으로 전과정 제공 (석사과정까지 100% 온라인 수강 출석 가능, 박사과정 50%) HD 시스템을 통한 고품질 온라인 강의 한인신학교 최초 온라인 "Live"강의

이벤트 1 11월 Early Bird 장학금
특별히 11월 한달동안 온라인 입학원서 접수와 입학허가를 받으시면 \$300불의 Early Bird 장학금 지급

이벤트 2 추수 감사 오픈 하우스
■ LA 확장강의실 (11월 25일(월) 오후 7시)
3020 Wilshire Blvd. Los Angeles CA 90010 T:(213)529-4147
■ 플러튼 본교 채플실 (11월 26일(화), 오후 7시)
* 자세한 학교 소개, 학위과정, 입학절차, 장학금소개, 통신수업 등 안내
* 참석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입학금 면제 혜택
탁월한 복음주의 신학의 산실인 그레이스미션대학교에 오셔서 세계선교의 꿈을 펼치시길 바랍니다

2020년도 봄학기 신입생 및 편입생 모집 중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el : 714-525-0088(대표)
입학 문의 이메일: admissions@gm.edu www.gm.edu

“북미주 한인교회 성도여, 하나님 나라 확장에 기여하라”



제2회 선교박람회 첫째 날 순서를 마치고 참가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제2회 KWMO 선교박람회 열려

한인세계선교기회운동(대표 김정환 선교사 이하 KWMO)이 주최한 제2회 선교박람회가 지난달 31일부터 한 주 동안 세리토스에 소재한 KWMO 본부에서 열렸다.

선교박람회는 중국, 몽골, 인도, 일본, 이스라엘, 키리키즈스탄, 요르단, 러시아, 멕시코, 한국, 미국 등 11개국에서 선교사들이 참가한 가운데 개회예배와 선교포럼, 선교사 간증, 선교 박람회 등 다양한 순서로 진행됐으며, 세계 선교 동향과 선교가 나아가야 할 방

향을 진단하고 제시하는 시간으로 이뤄졌다.

개회예배에서 누가복음 5장 1절-11절을 본문으로 “결정적 기적”이란 제목으로 설교한 김정환 선교사는 “전 세계 선교사들이 죽음까지도 받아들여야 하는 위태로운 현장 가운데도 사역을 진행하고 있다”며 “이런 선교사들의 희생과 헌신은 하나님 나라의 기적을 드러내는 발판을 마련해왔고, 앞으로도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쓰임 받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김정환 선교사는 “KWMO 선교 박람회를 통해 미주 한인 교회와 성도들이 선교의 비전을 회복하고, 영혼 구원을 위해 헌신하는 역사가

일어나길 소원한다”며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결단하고, 선교지와 연결되어 한인 디아스포라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일어나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김 선교사는 “그동안의 선교 운동이 선교대회를 중심으로 선교학적 전략을 제시하고 선교사를 파송해왔다면, 앞으로는 자발적 헌신을 통한 교회와 성도들의 적극적인 선교 참여로 선교 패러다임이 이동하고 있다”며 “앞으로는 전문인 선교사들을 비롯해 성도 개인의 선교적 삶으로 선교 참여와 확산이 활발하게 일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CMF 선교회 11월 선교사 정기 예배

“부르심에 순종했던 아브라함을 따라...”

CMF 선교회 11월 선교사 정기 예배

CMF 선교회(대표 김철민 장로)는 지난 2일, CMF 선교회 회관에서 세계 각국의 선교사 가정들이 참석한 가운데 11월 선교사 정기 예배를 드렸다.

예배는 김철민 장로의 사회로 김영호 선교사(예멘)가 대표로 기도하고 권혜연 사모의 특송에 이어 방익수 목사(사랑의 방주교회)가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창세기 13:1-4절)라는 제목으로 설

교했다.

방익수 목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 본도와 친척을 떠나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다가 하나님과의 약속의 장소로 돌아오게 됐다”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굳게 믿으며 선교의 현장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믿음의 사역자들이 되자”고 강조했다.

설교에 이어 엄영민 목사와 그리스 김수길 선교사가 짧은 메시지를 전했다며 채형병 목사의 인도로 세계 선교와 복음화를 위해 간절히 기도했다.

노숙자 영적 재활 센터, 아버지 밥상교회 퇴거 위기

11월 13일까지 새로운 장소 찾아야 교계와 성도들의 기도와 후원 요청

LA 한인타운의 중심인 웨스턴과 올림픽에서 노숙자 사역을 활발하게 펼치고 있는 아버지 밥상교회(Father's Table Mission 무디고 목사)가 최근 주인으로부터 퇴거 명령을 받고 일주일 안에 새로운 장소를 찾아야 하는 다급한 상황에 처했다.

퇴거 명령은 밥상교회 뒤편에 자리한 신축 아파트의 향의가 발단이 됐다. 1년 365일 아침, 저녁으로 예배가 드려지고, 노숙자들이 샤워도 하고 허기도 달래느라 출입이 많아 지자 신축 아파트에서 시에 불만을 제기한 것이다.

급기야 시 정부로부터 연락을 받은 건물주인은 오는 13일 수요일까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장소를 비우라고 통보했다. 노숙 사역을 하는



아버지 밥상교회 무디고 목사, 마리아 조 전도사는 지역 교계와 성도들의 중보기도와 관심어린 후원을 요청했다.

단체들에게는 기온이 급격하게 떨어지면서 겨울을 준비해야 할 가장 분주한 시기에 받은 퇴거 통보라 더욱 애가 탄다.

아버지 밥상교회는 홈리스들의 예배 장소일 뿐 아니라, 20여 명이 고 목사와 함께 생활하며 재활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일주일 안에 머물

장소를 찾지 못하면 그동안 재활훈련을 받던 노숙자들이 다시 길거리로 나가게 된다.

무디고 목사는 “제자훈련을 실시

하고, 변화된 영혼들이 이제 노숙자들을 섬기고 지도하는 든든한 동역자가 됐는데, 이런 난관에 직면하게 돼 매우 난처한 상황”이라며 “지역 교계와 성도들의 중보기도와 후원을 부탁드립니다”고 호소했다.

고 목사는 “과거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자로 거리를 헤매던 노숙자들이 중독에서 벗어나 새 삶을 꿈꾸고 있는데, 그들의 꿈을 꼭 지켜주고 싶다”라며 “20여 명 정도가 머물 수 있는 공간이나 주택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노숙자 사역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생명을 살리는 정말 귀하고 소중한 사역으로 새 삶을 찾은 영혼들을 무책임하게 포기할 수가 없다”라며 “너무 갑작스럽게 받은 통보라 울 겨울이라도 보낼 수 있는 공간이라도 있다면 새로운 예배 장소를 찾는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요청했다.

아버지 밥상교회 후원을 원하는 개인이나 교회, 단체는 전화 213-364-7289로 문의할 수 있다.

김동욱 기자

기독의료상조회
CHRISTIAN MUTUAL MED-AID
Since 1996

인류의 소망은 오직 예수!
www.cmmlogos.org

캘리포니아주 의료보험 의무화 및 미가입 벌금에 대비하세요!

뉴저지 주에 이어 2020년 1월 1일부터 캘리포니아 주도 의료보험 의무화와 미가입 벌금 제도가 재시행됩니다. 의료비 대책과 벌금 면제를 한번에 해결할 수 있는 CMM 기독의료상조회에 문의하세요!

CMM 기독의료상조회는?

- 크리스천들의 의료비 나눔 사업
- 1996년부터 24년간 미전지역의 한인 크리스천들이 참여
- 월 \$175로 의사방문, 검사, 입원, 수술은 물론 건강검진까지 지원
- 낮은 본인 부담금 (골드플러스 프로그램 1년에 \$500)
- 2년 이상 가입 회원 사망 시, 최대 \$17,500까지 장례비 지원
- 미국 내 의사, 병원 제한 없고, 한국은 물론 전 세계에서 발생한 의료비 지원

프로그램	Gold Plus	Gold	Silver	Bronze
1인	\$175	\$135	\$ 80	\$ 40
2인	\$325	\$260	\$160	\$ 80
3인	\$425	\$385	\$240	\$120
본인부담금(1인당)	\$500/Year	\$500/Incident	\$1,000/Incident	\$5,000/Incident
지원금/질병당	\$150,000	\$150,000	\$150,000	\$150,000
지원내용	의사비, 검사비, 치료비, 6개월 처방약, 응급실, 입원, 수술, 임신/출산 건강검진(\$500/1년)	의사비, 검사비, 치료비, 6개월 처방약, 응급실, 입원, 수술	입원, 수술	입원, 수술

* 기독의료상조회는 의료보험 회사가 아니라 크리스천들의 의료비 나눔 사업 기관입니다.

기독의료상조회
CHRISTIAN MUTUAL MED-AID
Owned by Logos Missions, Inc.
899 Disneyland Dr., Anaheim, CA 92802

CMM CA 지부 애너하임
이사라 ☎ 213-318-0020
김희자 ☎ 562-584-8880
* 홈페이지 www.cmmlogos.org에서 자세한 내용 확인 및 회원 가입을 하실 수 있습니다.

Phone: 773-777-8889 (Headquarters)
714-333-7487 (CA 지부)
Email: ca@cmmlogos.org



예언성취와 믿음(1)

요한복음 11:47-53



서울성은교회 목사 장재효

본문: 요한복음 11:47-53

47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가로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48 만일 저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저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49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저희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 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50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51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에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고

52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흠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라

53 이 날부터는 저희가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역사를 창출하시고 주관하시는 절대자가 계시는데 그 절대자의 계획에 따르는 앞날에 있을 일들을 미리 알게 해 주신 것이 예언입니다.

예언하신 하나님이 계시고 그 분이 우주와 만물을 주관하시며 그 가운데 속한 '나'라는 존재까지도 하나님이 영원한 신적 작정이라고 하는 역사의 계획 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이 믿어지고 기대가 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역사하시는 절대주권을 인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그 역사 속에 태어나서 살아온 오늘의 내가 앞으로 겪게 되는 것들도 내 뜻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역사를 계획하시고 엮어 가시며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져 갈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식언(한번 입 밖에 낸 말을 도로 입 속에 넣는다는 뜻으로, 약속한 말대로 지키지 아니함을 이르는 말)치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어지게 마련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 약속이 내게 어떻게 이루어져 왔는가를 살펴봐야겠고 앞으로 어떻게 주변역사가 엮어져 갈 것인가 하는 것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훗날 이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예언 성취의 과정에서 영생복락이라는 구원을 보장받을 수 있겠기 때문에 믿어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예언이 참으로 소중한다는 사실을 다시 절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벧전3:16)”라고 베드로 사도는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하나님이 우주와 지구역

사, 우리나라와 우리들의 형편을 어떻게 엮어 가실지에 대해 살피고, 그 뜻을 알아차리고 대비하면서 살아가는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택하시고 불러주시고 진리와 성령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앞에 소망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문은 예수님이 극진히 사랑하시던 나사로와 마르다, 마리아가 살고 있는 베다니 동네에서 있었던 기적을 두고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나누는 말들입니다.

본문 전의 내용은 예수님이 갈릴리에 계셨는데 나사로가 병들어 죽어가고 있으니 마리아와 마르다가 걱정이 되어 예수님께 자기 오빠를 고쳐달라고 기별하러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소식을 들으시고도 이틀을 그곳에 더 머무신 후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라고 불만스레 말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나사로가 잠들어 있으니 깨우러 가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잠들어 있으면 깨어 일어날 것이라고 말하며 예수님의 하신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제자들을 향해 다시금 “나사로가 죽었느니라”고 밝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신다는 이상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우리처럼 심성이 약하셔서 만일 베다니에 계시고 나사로가 앓다가 죽어가는 모습을 보실 것 같으면 예수님이 죽지 못하도록 고쳐 살리실 마음이 예수님 자신에게도 그럴 소지가 있다는 것을 나타낸 사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신 것은 그가 죽음으로 부활이 어떻게 실현되는가를 보여줄 수 있는 예시가 될 수 있겠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사야 55:8-9에 “여호와와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하신 말씀과 같이 예수님의 생각은 제자들과 차원이 달랐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조금 알듯하면서도 여전히 분명하게 감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나사로가 죽었고 그를 살려내기 위해 베다니로 가야겠다고 말씀하셨을 때 디두모라 하는 도마가 약간 빈정대는 말투로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고 합니다. 왜냐하면 죽은 나사로를 살리러 가는 예수님을 따라간다면 우리가 가다가 돌에 맞아 죽더라도 우리도 예수님이 살려주실 것이 아니냐는 뜻에서 하는 말투였습니다.

예수님이 며칠이 걸려 베다니로 오셨는데 마르다는 예수님 앞에 가서 원망과 불

평의 소리를 합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라는 말은 진작에 오셨다면 오빠가 죽지 않았을텐데 왜 이제사 오셨냐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이제라도 마르다가 바로 알고 진짜로 믿으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빠가 살아나는 것을 볼 것이라고 말씀하셨지만 마르다의 믿음으로는 그것이 믿어지지 않아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했습니다. 구원 얻은 영혼이 반드시 생명의 부활을 할 줄 믿는다는 마르다의 말에 예수님은 나사로의 부활은 마지막 때가 아니고 바로 지금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훗날로 포인트를 맞추고 현실의 부활을 부인하고 있는 마르다가 안타까워 요한복음 11:25-26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고 마르다에게 질문하셨습니다. 그때 마르다가 “주여 그러하오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했습니다. 훗날로 맞추었던 신앙이 바로 현실의 가능성 있는 부활믿음으로 예수님이 조정해 주셨던 것입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려 오셨다는 믿음으로 부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원망과 불평으로 예수님을 만났지만 예수님을 만난후로는 현실적으로 가능할 수 있다는 부활생기가 믿어지는 믿음으로 그 심령을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부활의 생기를 힘입은 것 같은 마음으로 산 등성이 집으로 올라가서 마리아에게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마리아가 예수님께로 가서 언니 마르다와 똑같은 식의 원망을 했습니다.

그들 자매의 신앙의 한계는 죽기 전에

는 어떤 병이든지 치유할 수 있는 예수님이지만 죽은 후에는 예수님도 속수무책인 것으로 그 능력을 제한하는 잘못된 신앙관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마리아와 그를 따라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통분히 여기시고 민망히 여기셨다고 했습니다. 이들이 우는 것은 예수님이 시간을 맞춰 오셨다면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 속에서이고 또 다른 시각에서는 죽음 자체가 슬프고 절망적인 것이라 울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 중 한 사람은 “보라 그를 어떻게 사랑하였는가”하고 또 한 사람은 “소경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을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고 하는 말들을 예수님이 들으시고 다시금 속으로 통분히 여기셨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육신의 죽음은 그토록 싫어하면서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는 죽을 일만 재촉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나사로가 있는 그곳에 가서서 무덤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마르다가 “주여 죽은 자가 나흘이 되었으며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했습니다.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하시고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돌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저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사로야 나오너라”고 말씀하시니 삼베로 수족을 동인채로 나사로가 나오니 예수님은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하셨습니다. (계속)

성은교회 장재효 목사 TV / RADIO / 신문 / 인터넷 동영상 설교

한 국 선 교 설 교					
한 국 방 송 설 교			한 국 신 문 설 교		
CBS TV	목요일 오후 2시	경북 기독교신문	3면 설교		
CTS TV	금요일 오전 6시	기도원 연합신문	3면 설교		
해 외 선 교 설 교					
미 국 방 송 설 교			라 디 오 미 국 방 송 설 교		
COX TV 워싱턴DC.	화요일 오후 6시	목요일 낮 12시	AM1540 라디오 코리아	주일 오전 8시 / 동영상 설교 제공	
	토요일 오전 7시	주일 오후 10시30분	AM1590 시카고 기독교방송	월요일 오전 11시 20분	
CTS TV	수요일 서부오후 4시30분 / 동부오후 7시30분		AM1190 LA 미주 복음방송	월요일 오후 5시 / 하와이 현지시간 오후 5시	
	토요일 서부 오후 6시 / 동부 오후 9시		AM1310 LA 미주 복음방송	화요일 오후 7시30분	금요일 오후 2시30분
미 국 신 문 설 교					
기독교일보	5면 설교	오프라인 칼럼 설교	FM91.5(SCA) AM1650 LA 미주기독교방송	수요일 오후 1시, 오전 2시	
	인터넷신문 설교	온라인 칼럼 설교			

지구촌 어디서든 YOU TUBE에서 “장재효 목사”를 검색하면 동영상 설교들을 선택시청 가능합니다.

提供 국제성은복음선교회

작은 교회를 위한 부흥 사경회 섬김 사역



김상덕 목사

복음장로교회 개척 37년목회 원로목사
KAPC(미주 한인 예수교 장로회) 중경 총회장
현, 중남미 선교 회장.
유튜브 (복음 채널) 방송선교

작은 교회를 위한 부흥 사경회 섬김 사역

이 땅의 사람들에게 유일한 영원한 구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하여 세워진 주님의 교회를 부족하지만 주님의 은혜 힘입어 섬기고자 합니다. 사례비, 교통비의 비용을 자비량하며 섬기고자 하오니 혹시 집회가 필요하실 경우 연락을 주시면 일정을 조절 하여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연/락/처
김상덕 목사
T.(714)213-1342
sangdkim@yahoo.com





COLUMBUS DAY SPECIAL SALE



NEW 2020 HYUNDAI ELANTRA SE

Lease **\$148** +Tax **or 0 Down \$228** +Tax

All In Stock With MSRP **\$20,005**

36 MONTHS CLOSED END LEASE, \$2,795 DUE AT SIGNING, \$3,250 LEASE CASH, \$400 COLLEGE GRAD, \$500 VOC, \$500 US MILITARY COUPON ON APPROVED CREDIT. 12,000 MILES/YEAR.

NEW 2019 HYUNDAI SONATA SE

Lease **\$178** +Tax **or 0 Down \$258** +Tax

All In Stock With MSRP **\$23,715**

36 MONTHS CLOSED END LEASE, \$2,795 DUE AT SIGNING, \$4,250 LEASE CASH, \$400 COLLEGE GRAD, \$500 VOC, \$500 US MILITARY COUPON ON APPROVED CREDIT. 12,000 MILES/YEAR.



NEW 2020 HYUNDAI TUCSON SE

Lease **\$198** +Tax **or 0 Down \$278** +Tax

All In Stock With MSRP **\$24,730**

36 MONTHS CLOSED END LEASE, \$2,795 DUE AT SIGNING, \$1,750 LEASE CASH, \$400 COLLEGE GRAD, \$500 VOC, \$500 US MILITARY COUPON ON APPROVED CREDIT. 12,000 MILES/YEAR.

NEW 2020 HYUNDAI SANTA FE SE

Lease **\$218** +Tax **or 0 Down \$298** +Tax

All In Stock With MSRP **\$27,130**

36 MONTHS CLOSED END LEASE, \$2,795 DUE AT SIGNING, \$2,750 LEASE CASH, \$400 COLLEGE GRAD, \$500 VOC, \$500 US MILITARY COUPON ON APPROVED CREDIT. 12,000 MILES/YEAR.



STEVE CHANG
213.235.6825



PAUL KIM
714.331.3855



MIKE LEE
714.914.8414



JUSTIN KIL
213.999.3935



CHARLEY JEONG
213.276.8959



JAMES PARK
213.839.3332



HARLEY KIM
949.433.1378

America's Best Warranty⁺
 10-Year/100,000-Mile
 Powertrain Limited Warranty
 Terms and conditions available



HYUNDAI

LA한인타운과 오렌지카운티에서 20분거리

1-888-644-7114

www.phhyundai.com

17621 Gale Ave., City of Industry, CA 91748

All prices exclude government fees and taxes, any finance charges, dealer preparation charges, and any emissions testing charges. Please contact Dealer for complete incentives and program details. Subject to change without prior notice. All prices, specifications and availability are subject to change without notice. Contact Dealer for current information. Your actual mileage may vary depending on how you drive and maintain your vehicle. Actual mileage will vary with options, driving conditions, driving habit and overall vehicle condition. All vehicles subject to prior sale. Expires 24 hours after publication. Plus Dealer installed options

담임 목사 청빙

아리조나 피닉스 서쪽에 위치한 갈보리 한인 교회 (Calvary Korean Community Church) 에서는 20년째 담임 목회를 해오신 조정기 목사님이 은퇴를 앞두고 있어 후임으로 오실 담임 목사님을 청빙 합니다.

■ 자격

1. 정규 신학 대학, 또는 대학원이상 졸업하신 분
2. 교단 가입에 문제가 없으신 분
3. 미국 체류에 법적인 문제가 없으신 분

■ 제출 서류

1. 이력서
2. 목사 안수 증명서
3. 최종 신학교 졸업 증명서
4. 자기 소개서
5. 최근 설교 CD
6. 추천서

■ 제출 방법

1. 청빙 위원회 이메일 (jungeun.park1014@gmail.com)
2. 우편 (430 N. Lewis St., Mesa AZ 85201)

■ 제출기한 : 2019년 12월 31일(화)

■ 연락 : T.(480)435-0998

**청빙 절차에 따라서 서류 심사 후 개별 통지 합니다.

갈보리 한인 교회

Calvary Korean Community Church

북미 루터교회(LCMS) 한인총회 교단 가입 설명회 성료



콘코디아대학교에서 진행된 북미 루터교회 한인총회 교단 가입 설명회

북미 루터교회 한인총회(총회장 문현봉 목사)는 지난 4일 일바인에 위치한 콘코디아 대학교(Concordia UNIVERSITY Boriand-Manske Center#221)에서 한인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교단 가입 설명회를 개최했다.

모두 35명의 목회자가 참석한 이

날 설명회는 콘코디아대학교 스티븐 뮐러(Steven Mueller) 학장과 마이크 김슨(Mike Gibson) 노회장 참석해 루터교단에 대해 소개하고 편목 과정에 대한 질의응답하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한편 이날 설명회에 이어, 첫 번째 교육은 내년 1월 20일(월)부터

24일(금)까지 일바인에 있는 콘코디아대학교에서 있을 예정이다.

루터란 교회 미조리 시노드에 소속된 북미 루터교회 한인총회는 미국과 캐나다에서 60여 명의 한인 목회자가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다.

문의 : 김영규 목사 213-663-3301

새언약아카데미 제8회 자선골프대회 성황



제8회 새언약아카데미 자선골프대회 크리스찬 초·중·고 사립학교인 새언약아카데미(NCA·교장 제이슨 송) 학부모회는 지난 2일 웨스트릿지 골프클럽에서 130명이 참가한 가운데 제8회 NCA 학교 자선골프대회를 개최했다. 매년 선교사와 목회자 자녀들을 위한 장학기금 마련을 위한 자선행사를 열고 있는 NCA 학부모회는 이 행사를 통해 지역사회에 학교를 홍보하고 학부모와 가족들을 초청해 친목을 도모하고 있다.



크리스마티 파티에서 전달할 선물을 포장하는 자원봉사자

“위탁가정 아이들의 산타가 되어주세요”

한인가정상담소 크리스마스 선물 후원 캠페인 전개

한인가정상담소(소장 카니 정 조)가 11월 한달 동안 위탁가정 어린이들을 위한 크리스마스 선물 후원 캠페인을 펼친다.

올해로 5회째를 맞는 이 캠페인은 11월 1일부터 12월 1일까지 위탁가정 아이들을 위한 후원을 받아 아이들이 원하는 선물을 구입한 뒤, 12월 7일 열리는 크리스마스 파티에서 아이들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현재 위탁가정 아이들과 정기적으로 만나는 한인가정상담소 소셜워커들이 아이들을 대상으로 올 크리스마스에 산타클로스에게 받고 싶은 선물을 조사하고 있다.

지난 4년간의 ‘크리스마스 위시리스트’에는 장난감이나 학용품, 축구공, 스쿠터, 아마존이나 타켓 상품권 등이 들어 있었다. 디즈니랜드에서 불꽃놀이를 보고 싶다고 말해주는 아이도 있었으며, 근사한 식당에 가서 맛있는 저녁 식사를 가족과 함께 하고 싶다고 밝힌 경우도 있었다.

한인사회 후원으로 위탁가정 아이들이 막연히 품고 있던 꿈들이 현실이 되기도 했다. 야구 선수가 되고 싶어서 다저스 경기를 꼭 보고 싶다는 아이도 있었고, 영화감독이 되고 싶어서 유니버설 스튜디오에 가고 싶다고 한 아이도 있었다. 이들의 사연이 알려지자 이들의 꿈을 후원하고 싶다는 후원자들이 등장, 자신의 꿈에 한발 더 가까이 다가간 경우도 있었다.

카니 정 조 소장은 “연말을 앞두고 한인 커뮤니티에서 아이들이 생

각하는 따뜻한 마음들을 전해주셔서 지난 4년간 위탁가정 아이들과 아름다운 크리스마스 파티를 할 수 있었다”면서 “올해도 많은 한인들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꿈을 잃지 않고 있는 위탁가정 아이들에게 산타클로스가 되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후원금은 개인 수표를 한인가정상담소로 보내거나 한인가정상담소 홈페이지에서 신용카드로 후원할 수 있다. 문의는 김지나 소셜워커 jinakim@kfamla.org, 213-235-4867로 하면 된다.

후원방법:

[개인수표] Pay to: KFAM, 받는사람 및 주소: AFFI Xmas, 3727 W. 6th St, #320, LA, CA 90020 [신용카드] 웹사이트 결제 www.KFAMLA.org

혈당수치가 내려가면 행복지수가 올라갑니다

식후 혈당 억제를 도와 혈당 걱정 없는 인생, 이제 프로지로 활짝 웃으세요.



프로지 PRO-Z

혈당수치 조절 및 혈당관리의 시작 나이와 상관없이 없으며 빠를수록 좋습니다.

당뇨병 환자 10명 중 3명은 자신이 당뇨병 환자라는 것을 모르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연령대별 당뇨병	30~44세	45~64세	65세 이상
환자 인지도	54.4%	73.2%	81.3%

특히, 30~44세의 젊은 당뇨병 환자는 거의 절반에 가까운 환자가 당뇨병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1병 \$69+Tax
3병 \$180+Tax
6병 \$350+Tax



핵심은 아연의 흡수 (CYP 특허물질 아연의 흡수율이 획기적으로 증가)

문의 전화 213.434.1170

PRO-Z USA Inc. 미국 공식 판매처

LOS ANGELES MONTEREY PARK GOLF ACADEMY

일반인·주니어를 위한 특별 맞춤 골프 프로그램

■ 대상 : 일반인·주니어 레슨 (8살~18살)

■ 시간 : 평일 레슨(화~금), 주말 레슨(토)

■ 장소 : Monterey Park Golf Club (LA한인타운에서 차로 15분 거리)

- 골프 선수를 꿈꾸는 꿈나무, 대학진학 전문상담
- PGA 투어 출신 프로가 체계적인 스윙 교정, 샷 게임, 필드 레슨까지



Robert Sul
University of Las Vegas Golf Team's 2 Times 백상배 챔피언
2009 KPGA TOUR
AJGA all-American
Golf Digest Top Ten Amateur



Kenny Kim
Named 2004 Gahr High School Athlete of the Year
UC Irvine Men's Golf Team from 2004~2008
2006 PGA Tour Buick Open at Torrey Pines
2010 U.S Open at Pebble Beach
2010 PGA Tour Reno-Tahoe Open
2011 Long Beach Open(T2nd)

T:(562) 383-3566

“아름다운 크리스천 가정 세워 건강한 교회 이뤄요”

제1회 DLMC (Date Love Marriage in Christ) 세미나 개최



오른쪽부터 제1회 DLMC (Date Love Marriage in Christ) 세미나 진행한 이병만 장로, 이상명 총장, 신승훈 목사, 신분희 사모



주님의 영광교회에서 진행된 제1회 DLMC (Date Love Marriage in Christ) 세미나

제1회 DLMC(Date Love Marriage in Christ) 세미나가 지난 2일과 3일, 양일 간 주님의 영광교회(담임 신승훈 목사) 호프 센터에서 개최됐다.

DLMC 세미나는 지난 9월, 주님의 영광교회에서 발족한 글로리 싱글즈 커뮤니티(Glory Singles Community)의 공동대표인 신승훈 목사와 이병만 장로가 기획하고 주관한 행사로, 결혼을 앞둔 크리스천 청년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데이트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성숙한 사랑의 결실을 통해 아름다운 가정의 건축자로 세우는 것을 목표로 한다.

세미나를 기획한 이병만 장로는 “우리 사회에 결혼을 기피하는 독신주의가 점차 늘어나고 있고 결혼하고자 하나, 배우자를 찾지 못하는 크리스천 미혼자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아 이런 만남의 장을 마련했다”며 “다음 세대 교회의 미래와도 직결된 결혼 적령기 청년들에게 성경적 결혼관과 올바른 가정관을 심어주고 서로 건전한 만남을 가질 수 있도록 DLMC를 발족하게 됐다”라고 취지를 밝혔다.

이번 세미나에 참석한 50여 명의 크리스천 청년 남녀들은 두 번의 세미나 후 다양한 게임과 식사 시간, 여러 가지 주제로 토

론 시간을 가지며 서로의 성품과 가치관을 파악하는 시간을 가졌다.

첫째 날 강사로 나선 신승훈 목사는 “성경적 결혼관과 좋은 배우자 되기”라는 주제로, 둘째 날은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이상명 총장이 “성경적 가정 규범과 실제적 적용”이라는 주제로 각각 세미나를 인도하며 △애 결혼해야 하는가 △행복한 결혼을 위한 요소들은 무엇인가 △부부 사이에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등의 질문에 진지하게 고민하고 서로의 생각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둘째 날 마지막 시간, 참석자들은 비공개로 마음에 맞는 커플을 정해 4명의 커플이 탄생했고, 주후 이메일 교환을 통해 만남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했다.

DLMC 운영위는 “앞으로도 크리스천 남녀들의 만남의 장을 연 4회 개최할 계획”이라며 “미주 지역 교회와 사회를 섬길 수 있는 이 지역에 한인 교계와 사회의 적극적인 협조와 후원을 바란다”고 요청했다.

한편 DLMC 제2회 DLMC 세미나는 오는 12월 28(토)부터 29일(주일)까지, 오후 4시부터 주님의 영광교회 호프센터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제19회 남가주 창작 성가의 밤 열려



이민이 작사, 지성심 작곡 '왕의 길을 예비하라'를 부르는 베델교회 성가대

남가주 한인교회음악협회(전현미 회장)가 주최한 제19회 남가주 창작 성가의 밤이 지난달 27일 세리토스장로교회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날 성가의 밤에는 글로리앤피스 합창단(Glory & Peace Choir), 코랄리움 선교 합창단(Choraleum Mission Choir) 그랜드페스티벌 합창단(Grand Festival Choir), CTS 콘서트 합창단, 베델교회 성

가대, 캄 합창단(Kam Chorale), 독창 허훈 등 8개 팀이 참가해 하나님의 사랑과 영광을 노래했다.

전현미 회장은 “남가주 창작 성가의 밤은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는 말씀을 따라 기독 시인들의 창작시와 작곡가, 합창단의 협력으로 이뤄져 더욱 뜻 깊은 시간”이라고 소개하며 “주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린다”고 소감을 전했다.

교회 미션 교회

<p>LA 지역</p> <p>주일예배 오전 11:00 주일예배 오후 2:00 주중 영혼의 섬 예배 오후 7:30(월, 수, 금)</p> <p>LA백송교회 백합회처럼 순결하고 스나무처럼 늘 푸르른 영혼으로 소생시키는 교회 3251 W. 6th St. Suite B1, LA, CA 90020 T. (213) 674-7966, (213)245-6616</p> <p>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45(새벽예배) 오전 9:30 3부예배(세대예배) 오전 11:30 대학청년부/EM 오전 2:00 수요종교도모임(수) 오후 7:30</p> <p>LA사랑의교회 평신도를 영도하고, 이민2세를 세워주기, 이민가정을 치유하며, 선교영광을 증진하는 교회 2610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06(Olympic과 Elden 교차로) T. (213)386-2233</p> <p>Rain down 주일예배 오후 3:30 Heart of David 금요일예배 오후 8:00 Lighter 전도 (매월 마지막주 금요일)</p> <p>New Church 전도와 양육으로 하나님 나라를 재건하는 큰 군대 1521 S. Hill St., LA, CA 90015 T. (310) 905-2228 / newchurchdtdia.com</p> <p>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0:30 3부예배 오후 2:00 금요기도회 오후 7:00</p> <p>갈보리민음교회 그리스도와 / 성도와 / 이웃과 3300 Wilshire Blvd, Los Angeles, CA 90010 T. (213) 365-8880 / F. (213) 365-8802</p> <p>1부예배 오전 7:3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45 4부예배 오후 1:30(영성예배)</p> <p>나성순복음교회 성령충만함으로 말씀 위에 세운 뜻을 이루아가는 예배공동체 1750 N. Edgemont St., Los Angeles, CA 90027 T. (323) 913-4499 / F. (323) 913-4494</p> <p>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유초등부 오전 11:00 중고등부 EM 오전 11:00</p> <p>나성제일교회 주님의 나라를 이루는 믿음의 공동체 213 S. Hobart Blvd., LA, CA 90004 T. (213) 388-7101</p> <p>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유년부 오전 11:00 중고등부 EM 오전 12:30</p> <p>새한교회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교회, 하나님을 높이는 교회(영성/7:21) 2531 W. Pico Blvd., Los Angeles, CA 90006 T. (213)386-0685 www.lasaehan.com</p> <p>1부예배 오전 8:30 2부예배 오전 11:15 중고등부 오전 10:00 유취부, 유년 초등부 오전 11:00</p> <p>예은장로교회 1401 W. Washington Blvd., LA, CA 90007 T. (213)745-9997</p> <p>1부예배 오전 9:30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기도회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5:20 (월-금)</p> <p>예향선교회 복음의 향기로 지역과 열방을 섬기는 교회 4323 W. Pico Blvd., Los Angeles, CA 90019 T. (213) 281-1196 / E:isaacdew@hotmail.com</p> <p>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0:30 3부예배 오후 1:00 라티노 오후 6:30</p> <p>주님의영광교회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고, 섬기고 사랑하는교회 1801 S. Grand Ave., Los Angeles, CA 90015 T. (213) 749-4500 / F. (213) 749-6700</p> <p>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1:00 중고등부, 유초등부 오전 11:00 4대 지역: 유아원 지역, 후드 지역, 장학 지역, 십자가 지역</p> <p>청운교회 선교에 흐름, 소.친 초 정신의 흐름, 바른교회관의 흐름 4465 Melrose Ave., Los Angeles, CA 90029 T. (323) 667-9920</p> <p>1부예배 오전 10:30 2부예배 오후 1:30 성경 공부 오후 3:00 새벽예배 오전 5:30 (월-금) 신터모니카 민미부 지역 유일한 한인교회</p> <p>산타모니카한인교회 죽도록 섬기는 교회 1520 Pearl St., Santa Monica, CA 90405 T. (310)502-9999 / www.smkc.us</p>	<p>주일예배 오전 11:00 교육부 예배 오전 11:00 평신도 리더십훈련 매 주 수 오후 7:00 금요 말씀과 삶 공부 오후 7:00 토요아침예배 오전 9:00</p> <p>LA씨티교회 일터교회를 세우는 예수 공동체 4009 Wilshire Blvd. #100B, LA, CA 90010 T. (323) 833-9090</p> <p>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성경공부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토)</p> <p>LA세계선교회 선교를 통해 행복함, 사랑의 공동체 3407 W. 6t. #412 (6가와 카탈리나), LA, CA 90020 T. (213) 909-6473 / www.missionla.org</p> <p>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1:00 Youth예배 오전 11:00</p> <p>한천영 담임목사 어린이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6:00 (화-금) 토요연합새벽 오전 6:20</p> <p>갈릴리선교회 가족같은 교회, 가족 이상의 가치 2212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18 T. (323) 735-6412 / gmchurch.com</p> <p>주일 오후 2: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토) 오전 6:00</p> <p>엘리아 김 담임목사 나눔과 섬김의 교회 세상속에 나아가 나누고 섬기는 교회 264 S. Rampart Blvd. #276, LA, CA 90057 T. (213) 272-6031 (37와 Rampart Blvd 교차로 북쪽벽에 위치)</p> <p>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전 11:45 4부예배 오후 1:30(영성예배)</p> <p>박현성 담임목사 성인 EM예배 오후 12:30 2부예배 오전 12:30 청년예배 주일오후 2:00 수요일예배 오후 7:00</p> <p>나성열린문교회 하나님나라의 비전을 실현하는 교회 1218 S Fairfax Ave, Los Angeles, CA 90019 T. (323) 634-9191 / laopendoor.org</p> <p>대예배 1부 오전 8:00 2부 오전 11:00 유년주일학교 오전 11:00 중고등부 오전 11:00</p> <p>정병노 담임목사 새가족 성경공부 오후 1:00 2부예배 오전 11:00 유년주일학교 오전 11:00 중고등부 오전 11:00</p> <p>새일교회 LA Sehil Presbyterian Church 760 S. Westmoreland Ave, Los Angeles, CA 90005 Tel. (213)384-8690, (213)620-7240 Email: lasehil2011@gmail.com (87와 Westmoreland 교차 First Baptist Church 옆에 있습니다.)</p> <p>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0:50 영양아/유초등 오전 10:50 중고등부 오전 11:00</p> <p>정인호 담임목사 청년부 오후 1: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5:30 (화-금) 토요일새벽예배 오전 6:00</p> <p>예수마을교회 행복한 교회 행복한 교인 616 Shatto Pl. Los Angeles, CA 90005 T. (213)249-9191, www.lajvc.webchurch.kr</p> <p>주일예배 오전 10:45 주일오후예배 오후 1:00 매일 밤 기도회 오후 9:00</p> <p>박은종 담임목사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45(월-금)</p> <p>예일한인교회 치유하는 교회, 회복하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 1611 Beverly Bl., Los Angeles, CA 90026 T. (213) 975-9191 www.wpcjesus.com</p> <p>주일 1부예배 (분양)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분양) 오전 11:00 금요일예배 (분양) 오전 8:30 리셋예배(분양) (소매예배) 오전 11:00</p> <p>정장수 담임목사 주일학교 오전 11:00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매 주 화-토 오전 6:00 청년부 예배 오후 1:30</p> <p>올림픽장로교회 세상을 구원하고 행복을 주는 교회 같은 빛, 마음, 꿈, 열매 3020 Wilshire Bl. #160., Los Angeles, CA 90010 T. (213)387-1700 C. (213)500-4737 / olympic-church.org</p> <p>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0:30 3부예배 오후 1:00 라티노 오후 6:30</p> <p>김신 담임목사 수요선양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00 청년부 예배 오후 1:30</p> <p>김은목 담임목사 수요일예배 오후 7: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유취부 유년부 오전 11:00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00 토요일새벽기도회 오전 6:00</p> <p>평화교회 사랑과 진정으로 예배 성령을 통해 하나님과 이웃에게 힘쓰는교회 2538 W. Pico Blvd., Los Angeles, CA 90006 T. (213) 251-9191 www.pjcc.church</p>
--	---

문/선/교에 앞장서는 **기독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chdailya@gmail.com

여의도순복음교회

“문재인 대통령 하야 동참 50만 서명지 안 보내”



여의도순복음교회.

“50만 서명지 보내왔다”는 전광훈 목사 주장에 당회 및 성도 일동 해명서 발표하고 부인 나서

여의도순복음교회(담임 이영훈 목사)가 “최근 전광훈 목사가 문재인 대통령 하야운동에 여의도순복음교회가 동참하고 50만 명의 서명지를 보내왔다고 주장한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4일 밝혔다.

인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여의도순복음총회)에서 진행하는 동성결혼 반대운동에 동참해 서명운동을 벌이면서 지금까지 약 50만명의 서명을 받았는데, 전광훈 목사는 이를 정치적으로 이용해 문재인 대통령 하야 서명이라고 잘못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여의도순복음교회는 “우리는 지난 61년 동안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마다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해 왔고,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명령인 복음 전파(선교)와 교육 봉사, 소외된 이웃을 섬기는 일에 전념해 왔다”며 “전통 복음주의 입장에서 교회를 운영하고 성도들을 바른 신앙생활로 인도하는 데 최선을 다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의도순복음교회는 그 어떤 단체나 개인이 정치적 목적으로 교회를 이용하거나 잘못된 주장을 해 교회의 본질적 사명감당을 혼돈케 하는 일을 하지 않기를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했다.

끝으로 “여의도순복음교회는 정치적 중립을 지키며, 이념 대립으로 나뉘어진 한국 사회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로 만드는 일과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여의도순복음교회는 지난 10월 3일 광화문 집회에 대해서도 “성도들을 동원할 것이라는 소문은 사실 무근”이라는 보도자료를 배포한 바 있다.

심하보 목사 “목사님들, 함께 나와 나라 위해 일하자”



눈물을 머금은 채 광화문 국민대회 연단에 선 심하보 목사. ©유튜브 캡처

“나는 비겁한 목사였다”는 메시지로 화제를 모은 심하보 목사(은평제일교회)가, 지난 10월 25일에 이어 11월 2일 광화문 국민대회에서도 20여분간 격정적인 메시지를 전했다.

심 박사는 “교회에서도 자유민주주의 체제여야 우리가 신앙을 지키고 잘 살 수 있다고 이야기했는데, 많은 성도님들이 흔들리고 옆으로 이탈했다”며 “그래서 지난 한 주간이 38년 목회 중 가장 힘들었다. 젊었을 때 사업에 실패해서 빚머리가 돌고 갈데가 없었을 때보다 더 힘들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그래도 견딜 수 있었던 것은 지난 철야 광화문 집회 나와서 그 짧은 설교를 (유튜브에서) 120만명이 보시고, ‘힘내세요, 나 교회 갈게요’ 하면서 지원해 주신 분들 덕분에 죽지 않고 여기 나왔다”며 “혹시 아직 교회 안 다니는 분들이 여기 있는가. 기독교가 나라 위해 얼마나 열심히 싸우고 있다. 가까운 교회 나가서 예수 믿으시라. 그래야 자유민주주의도 지킬 수 있다”고 말했다.

심하보 박사는 “저희 예배당을 지을 때, 외부 주민들이 반대하고 욕하는 건 얼마든지 견딜 수 있었다. 그런데 교인들이 내부에서 저를 공격할 때 정말 죽고 싶더라”며 “전광훈 목사님도 지금 얼마나 힘드시겠나. 좌파나 정부가 방해하는 것은 얼마든지 견딜 수 있지만, 내부에서 받는 공격은 힘드실 것”이라고 우려했다.

심 박사는 “1974년 여의도에 서 빌리 그래함 목사 전도집회

때, 모인 사람들을 보고 뭐하는지와 봤다가 결심했던 사람이 무려 2만명이었다고 한다”며 “이 광화문 집회에도 불신자들이 왔다”고 말했다.

그는 “한 사람 전도하는 게 얼마나 힘든가? 그러나 우리 기독교 어르신들, 내부에서 공격하지 마시라. 공격해서 당신들에게 유익이 되는 게 무엇인가? 몇몇이 모여서 기자회견하고 반대성명 내시는데, 전도 몇 명이나 해 보셨는가. 원로랍시고 주의 일을 그렇게 방해하면 어떻게 교회가 살겠는가”라고 했다.

이후 무릎을 꿇으면서 애원하기도 했다. 그는 “우리 어르신들 좀 참아달라. 더 이상 공격하지 말아달라”며 “(전광훈 목사님) 몸도 상처 없는데, 불쌍하지도 않은가. 나라 살리겠다고... 어르신들, 제가 이렇게 앞드려 빌겠다. 한 번 나와 보고 말씀하시라”고 했다.

또 “어떤 기독교 단체가 방송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여론조사를 발표한다. 대한민국 여론조사, 얼마나 거짓말이 많은가”라며 “저도 전화를 받았는데, 60이 넘었다고 하니 끊더라. 차별을 금지하겠다고더니, 나이를 차별하더라”고 했다.

그러면서 “당신들이 교회 얼마나 해 봤는가? 전도 얼마나 해 봤는가?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데”라며 “더 이상 내부에서 총질하지 말자”고 말했다.

김진영 기자

日 하토야마 전 총리

“사과란 피해자가 ‘이제 됐다, 그만 하라’ 할 때까지”

‘기독교인’ 아내와 한일 화해 위한 예배 드려



하토야마 전 총리(왼쪽 여섯 번째) 등이 손을 잡은 가운데 소강석 목사가 기도하고 있다. ©김진영 기자

“사과란 피해자가 ‘이제 됐다, 그만 하라’ 할 때까지 계속해야 하는 것이다.”

지난 2015년 광복절을 앞두고 서대문형무소를 찾아 무릎을 꿇었던 일본 하토야마 유키오 전 총리(2009.9~2010.6)가 남긴 말이다. 그가 지난달 27일 새에덴교회(담임 소강석 목사)를 찾아 ‘한일관계 회복을 위한 예배’를 함께 드렸다.

하토야마 전 총리는 ‘제1회 3.1운동 UN/유네스코 평화대상’ 국제부문 수상자로 선정돼 방한했고, 26일 국회서 열린 시상식 후 이날 아내와 함께 교회를 찾았다. 그의 아내는 기독교인이며, 그녀의 할아버지는 목사였다고 한다.

이날 설교 전 하토야마 전 총리를 소개한 소강석 목사는 “동북아 평화를 위해 한중일 동아시아 공동체론을 구상해 오신 분”이라며 “제국주의자가 아니라 자유민주주의자이자 평화주의자”라고 했다.

이어 소 목사의 설교가 끝난 뒤 단에 오른 하토야마 전 총리는 무엇보다 최근 어려워진 한일 관계에 대

한 안타까운 심정을 전했다. 그는 “지금 상황에 가슴이 아프다”며 “일본이 식민지 통치를 통해 한국인들에게 괴로움을 주었다. 이것을 많은 일본인들이 알아야 하고 사죄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일본과 한국 관계에 우애가 필요하다”며 “많은 이들이 국가가 우선이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사람이 목적이요 중심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국가가 목적이 되고 사람이 수단이 될 때 국가주의적이고 자국중심주의가 나타난다”고 했다.

소강석 목사는 “일본은 역사를

반성하고 한국은 일본을 용서해서로 같이 가면 좋겠다. 그러나 지금은 정반대의 길을 가려고 하고 있다”며 “이러다간 모두 길 위에서 쓰러질 수 있다. 이번 예배를 계기로 한반도와 현�태 사이에 평화의 다리가 놓였으면 한다”고 전했다.

이후 소 목사와 하토야마 전 총리를 비롯해 그와 함께 교회를 방문한 김영진 장로(한일기독교의원연맹), 황우여 전 국회의원 등이 손을 잡고 한일 간 화해와 평화를 위해 기도했다.

김진영 기자

Advertisement for Hyundai car featuring a silver sedan and a smiling man. Text includes '당신의 마지막 카드' and '213-276-8959'.

2019 미주기독교 대학박람회

IRUS (International Reformed University & Seminary) advertisement listing programs and contact info.

미성대학교 (America Evangelical University) advertisement listing programs and contact info.

MIDWEST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advertisement listing programs and contact info.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North America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advertisement listing programs and contact info.

월드미션대학교 (World Mission University) advertisement listing programs and contact info.

복음대학교 (Evangelical University) advertisement listing programs and contact info.

GATEWAY SEMINARY advertisement listing programs and contact info.

그레이스 미션 대학교 (Grace Mission University) advertisement listing programs and contact info.

광고 및 후원 문의 (Advertisement for church support) with phone number (213)739-0403.

코헨대학교&신학대학원 (Cohen University & Seminary) advertisement listing programs and contact info.

플러신학교 선교대학원 한국학부 (Fuller Theological Seminary) advertisement listing programs and contact info.

광고 및 후원 문의 (Advertisement for church support) with phone number (213)739-0403.

미주크리스천신학대학교(원) 신입생 | 편입생모집

참, (진리의길) 앎, (학문의 길) 삶, (십자가의 길)

신학대학교

신학과(B.A) | 126학점

신학대학원

- M.Div 교역학 석사과정 | 96학점
- M.A 석사과정 | 48학점
- Th.M 신학 석사과정 | 48학점
- D.Min 목회학 박사과정 | 48학점
- Th.D 신학 박사과정 | 56학점

본교 지원시 특전

개혁 장로회 한미연합총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학 과정이나 교역학 석사 과정 지원자는 첫 등록학기에 장학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교는 미국 신학교 협의회에 가입된 회원 학교입니다 서로 학점 교환이 가능합니다

입학상담 : 213-272-6031



미주크리스천신학대학교(원)
CHRISTIAN THEOLOGICAL UNIVERSITY IN AMERICA
276 S. Rampart Blvd. Los Angeles, CA 90057 | TEL:213-272-6031



PRINCETON BIBLE UNIVERSITY IN AMERICA
프린스턴바이블유니버시티

CNA | RN 시험준비영어반 학생모집

CNA, RN, 채혈사 입시를 위한 영어 강의를 개설됩니다
미국 공립학교에서 36년간 영어교사를 하신 헨리김 선생님이 지도합니다.



헨리김 선생

CNA, RN 준비반

월, 화, 수 오후 2시~4시

채혈사 준비반

월, 화, 수 오후 4시 30분~ 오후 6시 30분

상담문의전화

818-624-9106
213-272-6031

프린스턴바이블유니버시티 2867 1/2 7th St. Los Angeles, CA 90057

목회학 박사 (한국어과정) 학생모집

미동부지역 전통있는 명문 신학대학교인 뉴욕 신학대학교 에서
한국어목회학 박사과정 학생을 모집합니다 는 년 뉴욕에 설립된 정회원 학교 입니다

등록마감일 2020년 11월 1일

등록상담전화 212-224-2200
미주크리스천신학대학교

**NEW YORK
THEOLOGICAL
SEMINARY**

...continuing The Biblical Seminary in New York

한국어목회학 박사과정

정원 4명

교수진 NYTS 본교 교수진이 직접 L.A에서 지도 영어강의는 통역이 제공

강의 장소 **미주 크리스천 신학대학교 강의실**
276 S. Rampart Blvd. L.A, CA 90057

차수업	년	월	일	월	일	금	시간
강의#1 선지적 설교							
강의#2 논문작성법							
교수: Rev. Dr. Keith A. Russell							
차수업	년	월	일	월	일	금	시간
차수업	년	월	일	월	일	금	시간
차수업	년	월	일	월	일	금	시간
차수업	년	월	일	월	일	금	시간
차수업	년	월	일	월	일	금	시간

학위수여식 년 월 일 * 차수업과 학위수여식은 뉴욕본교에서 진행*



미주크리스천신학대학교(원)
Christian Theological University in America
276 S. Rampart Blvd. L.A, CA 90057 | 213-272-6031

미국을 관통하는 신앙의 강물

과학기술이 발전하고 우리 삶의 환경이 고도의 첨단문명으로 변하는 시대가 되면, 계몽된 사람들이 점차 종교로부터 멀어지고 세속화 될 것이라고 생각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20세기 후반부를 지나는 기술 문명의 시대에 들어와서도 종교적 영향력이 퇴조되어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민중기 목사
총현선교회

각종 종교와 사회적 이데올로기가 있습니다.

이러한 세계적 환경 가운데서 위대한 청교도의 전통가운데 세워진 미국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미국이라는 나라가 세워지기까지 정치로부터 종교의 자유가 온전히 이루어졌던 나라는 없었습니다. 미국은 놀랄 정도로 자유스런 나라입니다. 역사상 어떤 나라도 가지지 못했던 종교의 자유, 양심의 자유, 언론, 출판, 결사와 집회의 자유를 만끽하는 나라는 미국입니다. 더욱이 미국이 가진 신앙의 자유, 즉 종교와 교파를 자유로이 개인이 선택할 수 있는 나라로서의 미국은 역사상 전례가 없는 것입니다.

1776년 미국이 독립선언에 이르기까지 미국으로 건너온 많은 청교도들에게 중요했던 과제는 영국의 국교인 성공회에서 벗어나는 것이

있었습니다. 종교의 자유, 신앙의 자유를 찾아온 사람들에게 미국은 새 하늘과 새 땅이었습니다. 뉴욕, 뉴헤이븐, 뉴햄프셔, 뉴잉글랜드, 뉴올리안즈, 뉴브러즈윅 등 셀 수 없이 많은 영국과 유럽의 도시에 새롭다는 의미를 부쳐서 쓴 지명이 존재합니다. 미국을 세웠던 청교도들은 국가와 정치의 굴레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신앙생활을 하면서 새 삶을 개척하여 나가려는 가난한 복지의 삶을 추구한 것입니다.

독립의 선포와 7년 동안 영국과의 전쟁 이후에 미국이 헌법적 가치로 확립한 것은 국교를 선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조선 500동안 숭유배불정책으로 유교라는 국가 이데올로기가 존재한 것을 압니다. 많은 유럽의 국가에서도 국가가 특정 종교를 국교로 세움으로 종교적 관용이 사라졌던 것을 기억합니다. 아직도 많은 비서구 나라들은 특정 종교를 국교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종교의 자유는 미국을 관통하여 흐르는 자유로운 시네입니다. 이 생명강에서 자유로운 교회와 다양한 교파의 활동 및 교육기관과 봉사단체가 사회를 위한 공헌을 합니다. 이 전례 없는 자유의 생명강을 주의 나라 백성을 일으키기 위하여 사용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식탁!

한국에서 부교역자로 사역할 때입니다.

담임목사님께서 '오리 고기'를 좋아하신다는 소문이 교회에 퍼졌습니다. 그 덕(?)에 한 6개월 동안 심방을 가거나 교인들이 식사대접을 하면 거의 오리고기 집으로 가기가 태반이었습니다. 보다 못해, 제가 구역장님들에게 해명을 해드렸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오리고기를 그렇게 좋아하시는 것이 아닙니다(물론 싫어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그때 당시 새로 등록된 교인이 오리 집을 하는데, 장사가 잘 되지 않아서 그 집, 장사가 잘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말씀 하셨던 것이 와전된 것입니다. 저희 6개월간 거의 오리집만 다녔는데, 이제 오리집 그만 다녔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게 그 사람이 좋아하는 음식을 대접하곤 마음이야 누구나 가지고 있는 마음일 것입니다

한 목사님께서 설교 중에 이런 간증을 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 목사님이 부목사 때 심방을 가는데, 구역장이 "목사님 뭐 좋아하세요!"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선배 목사님들에게 "뭐 좋아한다는 소문이 나면 목회할 동안 그것만 먹어야 해!"라고 들으신 것이 있어서 "아무거나 잘 먹습니다." 대답하셨답니다.

그리고 첫 심방에서 한 가정에서 아주 다양하게 잘 차려진 식사를 받으셨답니다. 그런데 재미난 일이 그 다음에 계속 되었습니다. 분명 본인께서는 무엇이 맛있다고 말하지 않았는데, 그 다음 구역에서도, 그리고 그 다음 구역에서도 식사 때가 되면 목사님이 좋아하는 음식이 계속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알고 내가 좋아하는 것이 안 빠지고 계속 나올까?' 생각이 들었는데,



안성복 목사
다우니제일교회

얼마지 않아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 식사대접을 했던 가정에서, 구역장이 식사 도중에 '목사님의 젓가락이 어디에 가장 많이 가는가?' 생각하며 목사님의 젓가락을 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음식을 그 다음 구역에도, 그 다음은 또 그 다음 구역에도 전한 것이지요.

감사한 마음이 들면서 큰 깨달음을 얻으셨다고 합니다.

'목회도 이렇게 하면 되겠다! 하나님의 젓가락이 어디에 많이 가는가를 보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다!'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식탁에, 내가 대접하고픈 대로 하나님을 대접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표현으로 '차려주는 대로 드세요!'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좋아하실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그것을 최선을 다해 정성껏 대접해 드려야 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말씀 하셨습니다.

신앙 생활은 '내가 보기에 좋은 삶'이 아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내가 보기에 좋은 삶'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삶'의 끊임없는 갈등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삶을 선택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으로 대접해 드리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상식있는 크리스천

기독교 신앙은 상식을 초월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복음의 메시지 안에는 죄 사함을 얻는 죽음과 피의 이야기가 있고, 자연의 법칙을 거스르는 부활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과 은사라는 초자연적인 역사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일대기를 살펴보면, 기적이 없었던 적이 없었습니다. 귀신이 떠나거나 병 고침이 일어나는 일이 너무 흔해서 기적이 상식으로 여겨질 정도였습니다.



구봉주 목사
감사한인교회

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죽음 뒤에는 부활과 천국과 영생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죽음이 임박한 사람에게 혹은 그 사람을 사랑하는 가족과 친지 믿음의 형제자매들에게 "그렇게 슬퍼하지 마세요. 어차피 천국 갈 거잖아요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믿음이 없어서 되겠어요? 빨리 장의사에게 전화해서 예약이나 하세요"라고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질병의 고통 그리고 죽음과 맞닥뜨린 사람은 마음이 약해져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 사람의 가족들도 이별할 슬픔에

사로잡혀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위로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또 한 가지 상식을 벗어난 신앙의 예가 있습니다. 사람의 기본 예의와 도리를 무시하는 태도입니다. 오래 전에 들은 이야기입니다.

지인 중에 피아노 레슨을 하시며, 어렵게 생계를 꾸려 나가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늘 피아노 레슨비를 한 달, 혹은 두어 달 밀려 내시거나, 약속한 레슨 시간을 지나치게 자주 어기는 분이 계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하시는 핑계가 늘 교회와 선교에 관한 핑계였다고 합니다. "선생님, 제가 이번에 특별히 선교헌금을 해야 해서 다음 달에 레슨비 드리면 안 될까요?" "어머 선생님, 제가 교회도움이 있어서 아이 레슨시간을 바꿔야겠어요 죄송해요 다음에 보충해 주세요"

피아노 레슨 선생님이 크리스천이었기에 망정이지 불신자였다면, 과연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상식을 초월한 믿음의 사람, 그러나 상식을 벗어나지 않는 반듯한 크리스천이 되어야겠습니다.

리프팅/ 지방분해 최신펙 장비 도입

★ 리프팅 라인

4회 \$999

★ 부분 지방분해 S라인

8회 \$999

탈모

치질

감상선

당뇨

“ 만성두통, 양쪽 어깨 통증, 뒷목 땡기고 귀울림(이명), 어지럽고 심장이 두근거리고, 가슴이 답답하고, 속이 메스꺼리고, 꿈이 많고 깊은 잠을 못 자고, 한쪽 얼굴이 감각이 없거나 눈과 입 주위에 경련, 손과 팔이 저릿저릿하고 시큰거리는 마비증, 턱관절 장애 T.M.J.”

교통사고 전문병원

- 초강력 정력제
- 원형탈모, 지독한 비듬
- 알러지, 콧물, 코막힘, 눈가려움증, 천식
- 서해부 통증(사타구니)
- 치아 미백 파우더(3달분 \$60)
- 미용침, 아토피, 각종 피부병
- 수족이 얼음처럼 냉한 분
- 발뒤꿈치 통증, 다리 쥐오름
- 옆구리 통증(헛통)
- 10일 이상 자궁출혈
- 오실금, 전립선 비대증
- 자궁이 내려앉은 증상

- 치질(항문 문제로 하혈이나 통증)
- 자궁 물혹이나 통증(월경통, 하혈)
- 오십견, 좌골 신경통, 요통, 류마티스 관절염
- 안면 신경마비, 중풍, 심근경색, 지독한 어지럼증
- 각종 위장병, 불면증, 핫플러쉬, 불안조조, 식은땀
- 감상선, 당뇨병, 여드름
- 다리가 저리고 뻣기고, 무릎통증
- 골프 엘보우, 테니스 엘보우
- 빨간 코, 붉은 얼굴, 머리 속 두드러기
- 자궁 입구 근처에 물혹, 근종 수술 안해도
- 몸 전체 중에 밖으로 나온 혹이나 지방종
- 구연산 캡슐 쿼럼

초스피드 다이어트

1달

7~25lbs

✓ 손가락

✓ 발가락

✓ 마디관절

류마티스 관절통증

퇴행성 관절통증

손톱 발톱 질환

배배는 숙변제거약 먹으면서 체중 줄고 몸 전체 부종 빠지는 약

\$50

한달분

3대째 가업으로 이어온 한의원

Young Sun Acupuncture Clinic & Herb

영선한의원

영업시간

월~금, 10시 ~ 5시

토 10시 ~ 2시

Tel 213 380 7800

LA MEDICAL CENTER 3663 W. 6th St., #308, Los Angeles, CA 90020 (67와 아드모어)

한국수출 1만병 기념 특가세일

Dietary Supplement

햄프함초환

대마추출 건강기능식품 SUPERFOOD PROMISE

햄프함초환은 예고없이 오는 혈관 질환, 뇌졸중, 중풍, 심장병, 치매예방, 신경정신질환, 면역질환, 뇌전증에 탁월한 건강식품! 당뇨 탈출, 숙변제거의 특효!

신이 내린 항암식물!

THC Free
환각기능 없음

혈관 청소!
치매 예방

암 전이 예방!
당뇨 탈출

면역력 증강!
숙변 제거

2+1
2병 구입시
1병더
10월 30일 까지



Cannabinoids

대마추출물 Hemp Oil

많은 질병에 사용되는 유명한 자연치료제입니다.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칸나비오이드를 자극해 염증을 줄여주어 암, 뇌전증 치료와 노화방지에 효과가 있으며 특히 GLA는 미국암협회가 강력 추천하는 항암 식품입니다. 대마식물에서 추출된 CBD는 중독성이 없으며 환각성을 유발하는 THC성분이 없습니다. 만성통증, 불안증 등 다양한 질병치료에 도움이 된다는 과학적 연구결과로 건강과 웰빙세계에서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한국수출 1만병 기념 특가세일

햄프함 구입시
소금 or 함초 1병 선물

1,800 원

\$250 +Tax

\$190 +Tax

MANUFACTURED IN THE USA

함초는 어디에 좋은가요?

1 높은 영양소의 보고

90여 가지의 바닷물 속 좋은 미네랄 성분이 그대로 농축되어 있습니다.

2 장에 좋다

함초는 장운동을 촉진하는 작용이 있어 변비를 해소하고 장내에 쌓인 숙변을 제거하는데 효과적입니다. 더불어 장내 독소와 노폐물을 배출하는 효능도 있어 꾸준히 섭취하면 전반적인 장 기능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3 심혈관에 좋다

플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고, 혈액과 혈관의 지방질을 배출해 주는 효능이 있습니다.

4 당뇨에 좋다

함초는 혈당이 급격하게 상승하는 것을 억제해주며 인슐린 분비를 조절하는 기능이 있어 당뇨를 예방하고 증상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5 간에 좋다

함초에 들어있는 콜린은 지방간이나 간경변 등과 같은 간질환을 예방해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6 항암에 좋다

함초에 풍부한 게르마늄은 항암성분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연구를 통해 함초가 간암, 대장암, 유방암 등을 예방하는데 크게 효과적이라는 사실이 보고 되었습니다.

7 식이섬유가 많다

함초 100에는 약 7~8g의 식이섬유가 들어 있습니다. 이는 시금치의 10배에 달하는 양이다. 충분한 식이섬유 섭취는 혈당조절과 체중조절에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8 칼슘이 많다

함초에는 우유의 2배가 넘는 양의 칼슘이 함유 되어 있습니다. 아이들의 성장, 갱년기 여성과 노인들의 골다공증 예방, 전반적인 뼈 건강 유지에 필수적입니다. 그 밖에도 항산화, 피부미용, 두뇌 활동 촉진 등이 있으며, 일본 오히라산정 난치병연구소 이토 소장 보고서 '놀라운 함초의 효능' 에 항염증, 항균, 감작성 기능 증진, 기관지 건강 개선, 근육통 완화 등의 효능이 있다고 언급되어 있습니다.

Low Sodium Salt 天然 低鹽

BAJA SEA SALT

바하천일염

청정지역 바하 캘리포니아에서 만든 친환경 천일염으로 최고의 품질과 Kosher(코셔) 인증을 획득하여 미국과 유럽이 인정한 제품입니다.

바하천일염 4대 미네랄	일반 가공소금이 문제! (정제염 - 꽃소금, 맛소금)
나트륨 Na: Cl	바다염 (Na)
칼륨 K: Cl	의사들이 소금을 먹지 말라는 이유는 나트륨만 들어있는 소금을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칼슘 Ca: Cl	
마그네슘 Mg: Cl	

99.70% 미네랄 소금
최상급 천일염, NO 중금속
NO 간수



515g
바하 천일염 구입시
소금 or 함초 1병 선물
\$30 +Tax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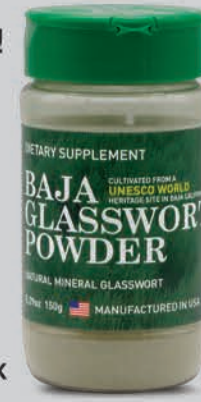
바다의 산삼!

BAJA GLASSWORT POWDER

바하함초분말

청정지역! 바하 캘리포니아에서 생산된 함초! 바하함초분말로 가족의 건강을 챙기세요!

풍부한 식이섬유
아미노산, 무기질
해양미네랄 함유!!!



150g
바하함초분말 구입시
소금 or 함초 1병 선물
\$30 +Tax

·E.UM Cafe (이음카페)
☎ (213)386-3896
바하천일염, 바하함초분말
도,소매 판매합니다.



CBD BAJA HAMCHO Inc. www.hempbiousa.com hempbiousa@gmail.com

☎ (213)386-3896, (213)605-2772
3020 Wilshire Blvd. #100, LA, CA 90010

100세 시대에 건강 동반자



1달분
\$150

2+1
2병 구입시
1병더
10월 30일 까지

CBD는 신경염증 반응을 감소시키고 신경발생 즉 신경계 조직의 발달을 촉진시킨다.

CBD가 악화되는 알츠하이머 병의 증세를 완화시킬 수 있으며 효율적으로 예방할 수 있다.

TheHempPlus.com

올가늌 건강기능식품

알츠하이머·파킨슨 예방에

햄프플러스

알츠하이머 병은

아밀로이드와 타우 단백질의 침착이 원인으로 알려져 있다. CBD는 베타 아밀로이드를 제거하는 기능이 있다. 항산화, 항염증 그리고 신경보호 및 재생촉진 효과를 보여 알츠하이머병의 진행을 늦출수 있을것으로 기대된다. CBD는 뇌의 수용체에 작용하여 정신 질환 및 신경계 치료에 다양한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파킨슨 병에는

체내 도파민 활성화 손상의 감소, 신경보호, 정신병적 등급향상과 환자의 약물, 공격적 행동 감소의 효능이 있다.

커큐민(Curcumin)추가로 치매의 큰 원인중 하나인 아밀로이드를 분해하는 효과가 있으며 도파민 및 기억력 향상에 도움을 주는 세로토닌의 분비를 증가시켜 준다.

TheHempPlus.com
RopheCentum, Inc.



세계 보건기구(WHO)가 밝힌 알츠하이머, 파킨슨 병 예방에 효과적인 CBD를 햄프플러스에서 경험하세요

츠빙글리의 성경관과 스위스 종교개혁의 특징들(3)

김재성 교수(국제신학대학원대학교 조직신학)



김재성 박사(국제신학대학원대학교 부총장)

2. 츙빙글리의 성경의 적용과 성취들

우리는 츙빙글리가 교회의 전통보다는 성경의 권위에 대해서 확고한 판단을 갖고서 철저히 노력했음을 한 번 더 확인하고자 한다. 그가 성경적 확신을 가지고 16세기 종교개혁의 시대에 얼마나 큰 공헌을 하였는가를 살펴보자.

성경을 최종 권위로 인정했다는 것은 단순히 참된 지식의 근거만을 발견한 것으로 그치지 않았다. 성경은 지혜의 보고라거나, 구원의 복음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다. 츙빙글리와 스위스 종교개혁자들은 성경이 제시하는 사회의 건설과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는 일에서도 엄청난 변화를 가져왔다.

츠빙글리의 성경적 확신은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와 그 적용을 위해서 교회가 시정부당국과 일반 정치 문제에 대해서도 깊이 간여했다는 점이다. 츙빙글리의 선도적인 역할로 인해서 스위스 종교개혁자들과 개신교 진영에 가담한 목회자들이 로마 가톨릭 교회의 전통을 비판하고, 시대적 변화를 깨닫게 되었다. 스위스 지방의 정치적인 문제는 곧바로 교회의 독립권과 자치권을 확립하는데 깊이 연계되어져 있었다. 세속 정부와 교회 사이의 관계는 언제나 균형을 잃어버린 상태로 유지되어 왔었다. 로마 가톨릭 교황청의 위상에 따라서 세속 통치자들의 맞대응이 혼란을 가져왔었다.

성경의 권위를 가장 신뢰하였다 하더라도, 많은 구절들에 대한 정확한 의미파악과 해석들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츙빙글리의 성경 해석과 개혁적인 신학사상은 지속적으로 발전되어 나갔다. 무엇보다도 16세기 신학의 핵심쟁점이었던 성만찬 해석에서 츙빙글리의 상징설은 가장 두드러진 가르침으로 남았다. 1525년 이후로 츙빙글리는 루터에게 몇 차례 의견을 표시하였고, 여러 편의 글과 저술을 발표하였다. 츙빙글리는 성만찬이라는 것은 자신을 주님의 군사로 다짐하는 의식이라고 주장했다. 고린도전서 10장 3절에 대한 해석에서도 츙빙글리는 단지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기념하면서 상징하는 것들을 서로 나누는 것이라고 풀이했다.

츠빙글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감당한다는 확신을 가졌는데, 말씀에 신실한 자들을 통해서 눈에 보이는 교회를 창조하고 보전하기 때문이다. 츙빙글리는 교회의 기초가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과 맺으신 언약이라고 확신했다. 각 지역의 교회들이 연합하여 우주적인 교회가 형성된다. 1530년에 저술했으나, 츙빙글리가 서거한 후 1536년에 출판된 『믿음의 해설』에 보면, 프랑스 국왕 프랑소와 1세에게 보내는 헌정문이 담겨있는데, 여기에서 교회의 개혁을 강력하게 주장하였다.

츠빙글리는 새로운 방식으로 성경을 해석했고, 개신교회의 확립을 위해서 취리히 교회의 설교자로서 노력했다. 하지만, 그의 탁월한 지도력은 박해를 받았던 종교개혁자들의 상황타개를 위해서 여러 차례 모임에 나가서 중요한 발언과 저술을 발표하면서 발휘되었다. 1525년 이후로 루터의 성만찬 교리와 츙빙글리의 새로운 해석이 큰 차이를 보이면서, 신적인 임재에 관한 이해의 골이 깊어졌다. 그럼에도 츙빙글리는 1529년에 마틴 부셔의 주선으로 회집된 말부르크 개신교 지도자 모임에서 츙빙글리는 스위스 종교개혁자들을 이끌고 나가서 독일에서 온 루터를 비롯한 다른 종교개혁자들과 서로 중요한 교리적 기초를 확립했다. “말부르크 종교화의”(the Colloquy of Marburg)에서 츙빙글리는 루터파 지도자들과 함께 개신교회의 교리적 기초를 세웠다.

유럽의 종교개혁은 로마 가톨릭 교회와의 논쟁으로 그치지 않고, 막강한 권세를 가진 황제와의 사이에 정치적 긴장관계를 유발하였다. 1530년에 합스부르크 황제 찰스 5세가 개최한 “아우구스부르크 종교회의”(the Diet of Augsburg)는 유럽의 정치와 로마 가톨릭에 대항하던 독일지역 개신교의 문제를 주로 다뤘다. 황제는 독일 개신교회들에게 자신들의 입장을 설명하도록 요청했다. 멜랑히톤은 6월 25일, 루터파의 입장을 요약해서 “아우구스부르크 신앙고백서”를 제출했다. 츙빙글리는 7월 11일에 자신의 개신교 입장을 담아서 『믿음의 이해』(Fidei Ratio)를 제출했다. 독일 남부 지방에서는 부셔와 볼프강 카피토가 쓴 신앙고백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로마 가톨릭에 속해 있던 황제는 아무것도 용납하지 않고 1531년 4월 15일까지 모두 다 로마 가톨릭 신앙으로 복귀하라고 명령했다. 그래서 루터를 지지하는 독일 군주

들은 스말칼트 동맹을 맺었고, 아우구스부르크 신앙고백서를 채택하였다. 부셔의 스트라스부르크도 이 동맹에 참여했으나, 츙빙글리와 스위스 개혁교회들은 가담하지 않았다. 츙빙글리는 부셔가 너무나 루터파 신앙고백과 같은 입장이라고 불신하게 되었다.

스위스 지역 개혁자들은 츙빙글리의 영향을 받고 있었기에, 아우구스부르크 신앙고백서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531년 10월 11일, 스위스 가톨릭 진영에 속한 군대가 두 번째 카펠 전투에서 개신교 진영의 군대를 제압하였고, 츙빙글리는 사망했다. 그리고 11월 24일 외폴람파디우스가 흑사병으로 사망했다.

츠빙글리의 핵심적인 교리들은 스위스 종교개혁에 있어서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그의 입장을 계승한 “제1 헬베틱 고백서”가 불링거

를 “상징”하는 것이라고 하는 다소 급진적인 해석을 내놓았다. 아마도 그가 이러한 변화된 견해를 갖게 된 것은 네델란드 법학자이자 인문주의 해석자였던 코넬리우스 호엔(Cornelius Henrici Hoen)의 편지를 읽었기 때문이라고 추정되며, 같은 비텐베르크 대학 교수이면서도 루터와는 달리 칼 슈타트가 성만찬에서는 아무런 실제적 임재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츙빙글리는 1524년 11월에, “성만찬에 관하여 매튜 알베르에게 보내는 편지”를 작성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육신의 양식이 아니라 생명의 양식을 언급한 것인데, 영적인 양식임을 가장 중요한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고 츙빙글리는 지적했다. “이것은 내 몸이다”(마 26:26)는 구절에 대해서 츙빙글리

월애 거의 동시에 출판되었다. 츙빙글리의 『친절한 주해, 즉 마틴 루터의 성만찬 해석에 대한 고찰』은 그가 강력하게 주장하는 대부분의 내용들이 담겨있다. 츙빙글리는 루터의 주장들을 요약해서 설명했고, 예수님의 말씀들 가운데서 관련된 것들을 다시 제시하였다. 그는 요한복음 6장을 가장 중요한 해석적 기반으로 제시하면서, 그동안 설명해 온 입장을 요약하였다. 츙빙글리가 이해한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적인 몸으로 세상이서 지내는 동안에, 유한한 신체로서 활동하다가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 앉으셨다. 따라서 그의 몸과 피는 만물 가운데 편재할 수 없으며, 성만찬의 빵과 포도주 안에 임재 할 수도 없다는 것이다.

유아 세례에 대해서 가장 강력하게 주장한 종교개혁자가 츙빙글리



츠빙글리가 출생한 생가 빌트하우스. ©김재성 박사

에 의해서 정리되어서 1536년에 나왔고, 칼빈의 『기독교강요』와 1549년의 “제 2 헬베틱 신앙고백서”로 연속되어졌다. 성만찬에서 빵과 포도주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 것이냐의 츙빙글리와 “임재”하는 것이냐의 루터의 해석 차이는 끝내 간격을 좁히지 못하였다. 스위스 지역에서 광범위하게 영향을 끼친 츙빙글리의 신학은 그 성경해석과 적용에 있어서 루터와도 다르고, 부셔와도 차이가 있다. 취리히 교회가 처한 개혁과제가 달랐기 때문이고, 반대파들과의 쟁점이 달랐다.

츠빙글리도 처음에는 루터와 거의 비슷한 사상을 가지고 있었으나, 1523년과 1524년에 성만찬의 빵과 포도주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

는 사람이 필요한 생명의 양식으로 주님의 살을 먹는 것이 아니므로, “이것은 내 몸을 상징하는 것이다”고 해석하였다. 상징하는 것을 가지고 그것의 본체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츙빙글리의 해석과 비슷한 견해를 가진 신학자는 네델란드 법학자 호엔과 바젤의 개혁자 외폴람파디우스였는데, 물질적인 음식을 나누면서 동시에 영적인 식사를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스트라스부르크 개혁자 마틴 부셔는 성만찬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죽음을 기념하는 것이며, 불신자들이 아무런 의미도 없이 먹고 마시는 것은 효력이 전혀 없다는 입장이었다.

츠빙글리와 루터의 성만찬에 관련된 주요 저작들과 그 안에 담긴 성경해석의 차이점들은 1527년 2

이다. 골로새서 2장 11-12절에 근거하여, 할례와 유아세례의 연관성이 있음을 강조했다. 아브라함의 자녀들에게는 이미 믿음이 존재하고 있었기에 할례를 통해서 입증할 수 있었다 (롬 4:11-12). 그는 제레코 후프마이어나 카스파르 슈벤크펠트의 저술을 비판하면서, 성도들이 구세주에 대하여 확고한 지식을 가진 후에 받는다는 믿음의 세례와 그 이전의 상태에서 받는 세례를 구별하는 것에 대해서도 반대하였다. 믿음을 가진 자들은 그가 어떤 연령에 속해 있다하더라도, 은혜의 언약에 참여한 자들이다. 세례란 하나님께서 전적인 우선권을 가지고 그의 자녀들과 언약을 맺는 “상징”(sign)이라고 츙빙글리는 확신했다. (계속)

앞서가는 젊은스타일
살아있는 곳

남자 헤어컷 \$8
매주 목요일에는 남자 헤어컷을 \$8에 해드립니다. 미리 예약하시는 분에만함. * 헤어 컬러 살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관련된 위치- 넓은 지하 주차장
웨스턴+3가 코너

마이스타일리스트 미용실에서
컷트하시는 모든 분께 헤어 컬러를 파격적인 가격에 해드립니다.

헤어컬라 전문점

헤어컬라
\$40 up **\$20** up

* 단, 컬러만 하시면 \$40^{up}

매직스레이트
\$120 up

프로페셔널-웰라 제품만 사용합니다
광고에 사용한 모델의 헤어 컬러는 마이스타일리스트 미용실에서 사용하는 웰라 제품으로 컬러한 실제 사진들입니다.

PROFESSIONAL
WELLA SEBASTIAN

앞서가는 멋쟁이들이 찾는 곳
mystylist

301 S. Western Ave. Suite 110 L.A., CA 90020 • 영업시간: 월요일 부터 토요일 까지 10:00 AM ~ 8:00 PM
Tel: 213-739-1022

www.chdaily.com
 광고문의 213.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CHRISTIAN BUSINESS

www.chdaily.com
 광고문의 213.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Classified AD

헤밀리자동차 그룹
 www.alexkimtrading.com

대표전화 323.737.5900
 David Kim 213.703.7077

중고차의 황제
 출장방문 가능, 일요일도 오픈
 933 S. Western Ave, LA, CA 90006

손바느질 양복의 명가
골드핑거

T.213.386.5858

직접재단/직접재봉/남녀맞춤/명품 옷수선
 Master Tailor 김병호
 975 S. Vermont Ave, #102, Los Angeles, CA 90006

CD Printing

CD전문 주님미디어입니다.
 교회성경, 부흥회 시디 앨범, 신학교 강의 오디오북
 소장, 대량 모두 제작이 가능합니다.

1,000장 이상 주문시
신년맞이 이벤트
 (프린트CD + CD봉투 + 라벨)포함입니다.

1,000장 \$350
 3,000장 \$950 (디자인Free)

그밖의 다양한 콘텐츠 제작

전도용 볼티슈
 주일예배
 영미교과
 마그네틱 메모
 문의 323.265.0244 www.junimedia.com

자서전(대필)전문

■ 자서전 쓸 분
 ■ 대한민국출생 8.15와 6.25등 많은 경험 후 지금 성공 자리에 서신 분

자녀들과 같이 자서전 쓰고 싶은 분 연락바랍니다.

자서전(대필)전문 작가(시인·박사)
T. (213) 618-1508

아이넥스 바디샵

자동차 사고...
 더 빠르고 완벽한 복원을 원하신다면
 이제 아이 넥스입니다.

최고의 기술과 완벽함을 추구합니다.

inex AUTO COLLISION CENTER

Quality Body Work & Life Time Warranty
 2811 Leeward Ave Los Angeles, CA 90005
 E-Mail : inexcollisioncenter@gmail.com

24시간 사고발생시 연락주시면 언제든 달려갑니다.
213.383.1230
 FREE ESTIMATE • TOWING

헤어컷 특강

미용을 배워 선교하는데 사용하실 분들을 위해 특강을 엽니다.

- 대상 : 전도와 선교를 위해 사용하실 분 (현재프로 미용인도 OK)
- 회비 : 월 \$10
- 강사경력 : 전 국가대표 선수권자
- 문의 : 213.392.2323

9가 로데오 갤러리 몰
오페라 하우스 베이커리

교회행사용
CAKE, 빵 주문시 SALE

케익 및 빵 단체주문 환영

T.(213)384-1999 operahousebakery@gmail.com
 833 S. Western Ave. #38, LA, CA 90005

삼성이 하면 다릅니다

www.easy2424.com
 한국식 포장이사 가능

귀국·시내·타주이사·차량운송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고객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무료 전화 (877)580-2424
 (310)538-3333

18118 S. Broadway St #B., Gardena, CA90248

기독교일보와 함께하는 여행 성도간의 교제, 단합, 힐링을 위한 시간!

교회 맞춤형 힐링 여행

교회 상황에 맞추어 원하시는 날짜, 인원에게 여행 플랜을 드립니다.

11월

발보아 식물원 태평양연안 기차여행

기차 타고 떠나보자~
샌디에고 여행
 태평양연안 기차여행, 샌클라멘테 피어, 럭시 뷔페, 발보아 팍

11/9(토) 당일
\$99

천 오백만불 보험가입
 편안하고 안전한 여행~

Tel. 213.434.1170
 Tel. 213.739.0403

3020 Wilshire Blvd #160., Los Angeles, CA 90010 / chdailya@gmail.com



찾아오요!

오픈청지기재단에서 사랑과 나눔을 함께 할 비영리지원단체를 찾습니다

오픈청지기재단(Open Stewardship Foundation)에서는
한인사회,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하는 비영리 단체들의 자체 프로그램 활성화를 적극 돕습니다
오픈청지기 프로그램을 통한 지원금은 미주 지역사회 곳곳의 건강과 복지향상 보탬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오픈청지기재단과 사랑/나눔을 함께 하실 기독교 단체 및 비영리 봉사단체들을 모집합니다
지원 신청서는 웹사이트에서 다운로드 하실 수 있습니다

openstewardship.com

접수기간
2019년 11월 22일까지

발표일자
2020년 2월 28일(금)

최종 선정된 지원단체명은 오픈청지기재단 웹사이트, 신문광고 및 안내우편을 통해 발표 및 공지될 예정입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마태복음 5장 16절]



사랑과 나눔의 정신을 온 세상에 전하는 -

Open Stewardship Foundation

오픈청지기재단 | **213-593-4885**
1000 Wilshire Blvd., #500 LA, CA 90017